ARCHITECTS

건축사

KOREAN ARCHITECTS JOURNAL

VOL 556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5 08

1966년창간

건축사 August 2015 KOREAN ARCHITECTS VOL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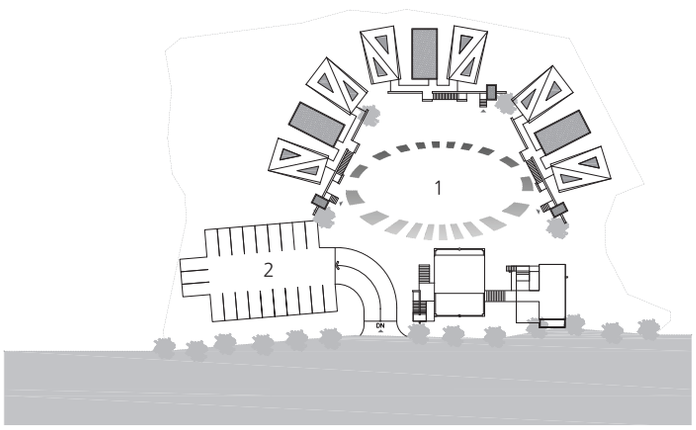
김녕리 5992

Gimnyeong 5992

설계자 | 박현모_KIRA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1

1974년 제주도 제주시에서 출생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5년)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1998년 대웅 건축사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아 2009년부터 고향 제주에서 자신의 사무소인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1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나인브릿지 파빌리온 및 연회장·다목적홀·그랜드홀, 신창성당장례식장. 김녕리5992, 이도이동 다가구주택 등이 있다.

1 _ 외부 공간 2 _ 주차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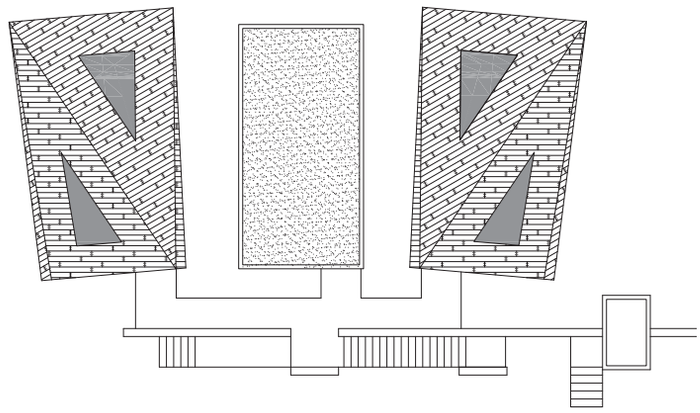
건축주 | (주)보양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1
시공사 | (주)열린종합건설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992번지
주요용도 | 숙박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47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86.05㎡
연면적(Gross Floor Area) | 1,004.1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7.59%
용적률(Floor Area Ratio) | 22.4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노출콘크리트, 목재
- 내부 :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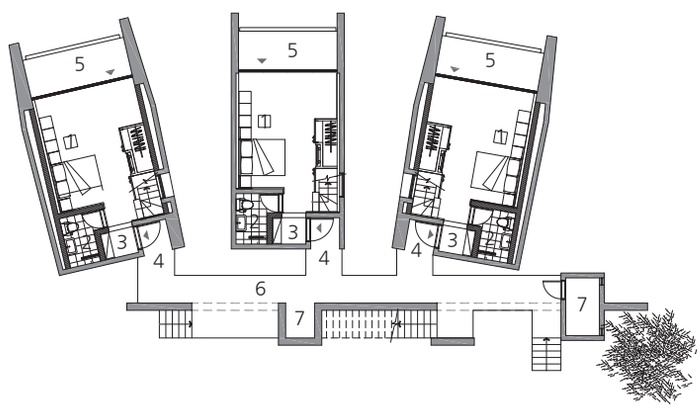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12. 28 ~ 2009. 10. 2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12. 15 ~ 2014. 03. 12
사진(Photographer) | 박현모(Park, Hyun-mo)

· 설계팀 : 박근부, 김현정, 홍혜민, 강민주, 황정필, 오시훈, 김태영, 이명범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정구조
- 기계설비분야 : (주)한일
- 전기분야 : (주)한일
- 소방분야 : (주)한일

Client : Bo yang Co.,LTD
Architect : Park, Hyun-mo
Project Team : Park Geun-bu / Kim Hyun-jeong / Hong Hye-min / Kang Min-joo / Hwang Jeong-pil / Oh Si-hoon / Kim Tae-yeong / Lee Myung-bum
Location : 5992, Gimnyeong-ri, Gujwa-eup, Jeju-si, Jeju-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Jeong Structure
HVAC Engineer : Han-Il MEC
Electrical Engineer : Han-Il MEC
Fire Engineer : Han-Il MEC
Finishing
Exterier : Exposed mass concrete, Wood, Glass
Interior : Lauan Ply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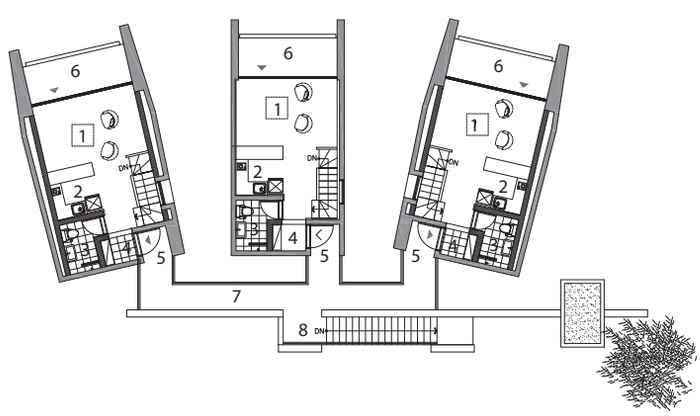


옥상 평면도



2층 평면도

1_방 2_욕실 3_현관 4_포치 5_발코니 6_연결다리 7_린넨실



1층 평면도

1_거실 2_주방 3_욕실 4_현관 5_포치 6_발코니 7_연결다리 8_계단

비워진 틈새에서 제주의 하늘과 바다를 담다.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그리고 제주를 오롯이 간직한 곳인 “김녕”, 그 제주다운 장소에 “풍경의 틈 만들기” 프로젝트로 “김녕리5992”가 진행 되었다.

시대가 지날수록 건물의 형식이 지역별 경계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제주건축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해결방법으로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응한 선조들의 삶에서 돌과 바람이라는 설계인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추상적 단어를 건물에 적용 했다.

먼저 돌과 바다 방향으로 유닛을 배치하고 각 공간은 작게 분절되어 비워진다. 이 비워진 틈새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형태를 깎아내고 시간의 결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자연히 생긴 틈으로 빛과 바람이 머무는 시적 풍경을 만들어 내고 열림과 닫힘에 반복의 공간변화를 주어 시각적 움직임이 있는 흐르는 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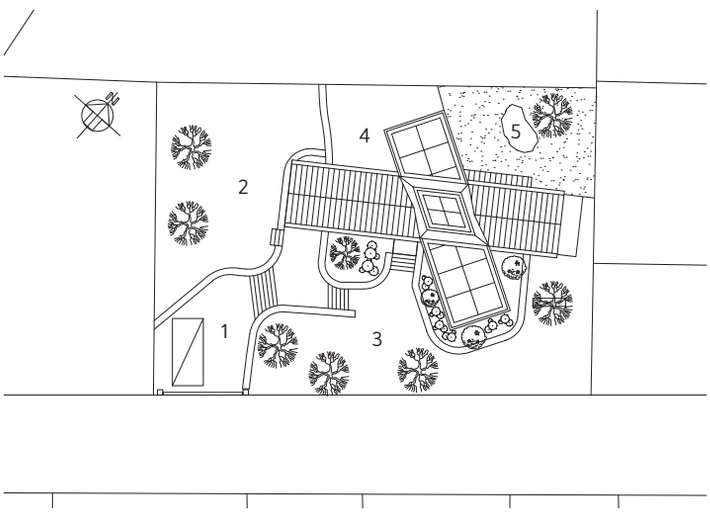
타워하우스

Tower house

설계자 | 정웅식_KIRA
㈜온 건축사사무소

울산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多喜家>를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온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를 맡고 있으며 울산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대학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제5회 양산건축문화대전 장려상-<多喜家>, 서부산권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현상공모 우수상-<CULTURE TREE>, 제8회 농촌건축대전 초대작가 선정, 2015년 울산 건축사상-<Y-House>을 수상하였다. 대표작으로 <多喜家>, <流然齊>, <Suni's nature>, <간절곶 엔제리너스>, <City-flower>, <Y-House>, <Tower-house>, <Cubic>, <Double house>등이 있다.

1 _ 진입마당 2 _ 사랑마당 3 _ 앞마당 4 _ 사이마당 5 _ 후정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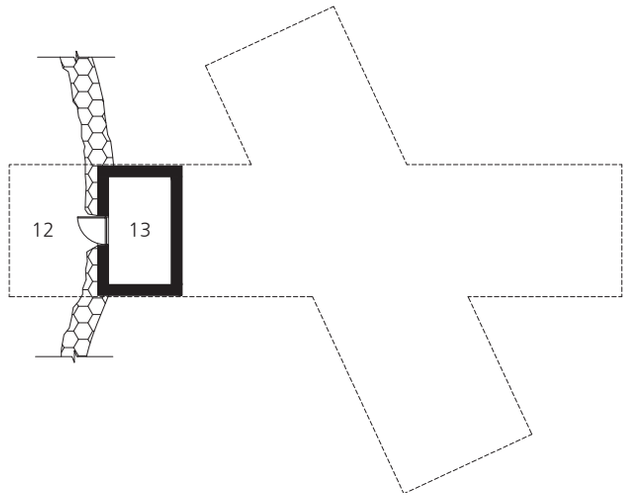
건축주 | 이해권
감리자 | ㈜온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이해권

대지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49번길 24-7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752.9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8.93㎡
연면적(Gross Floor Area) | 145.7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7.12%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6%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적삼목 노출콘크리트, THK22 울링,
  THK0.5 부식동판 거멀접기
- 내부 :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 적삼목 무절 스크레치,
  THK10&20 오크 탄화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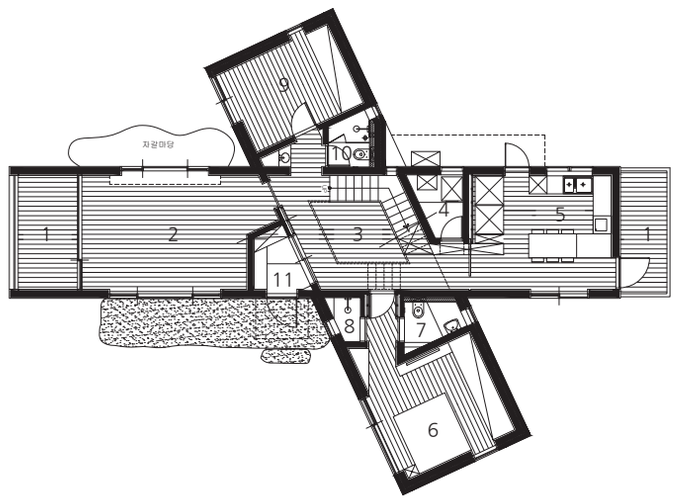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5 ~ 2013.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5 ~ 2015. 03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경제구조
- 기계설비분야 : 금강디엔에스(주)
- 전기분야 : 금강디엔에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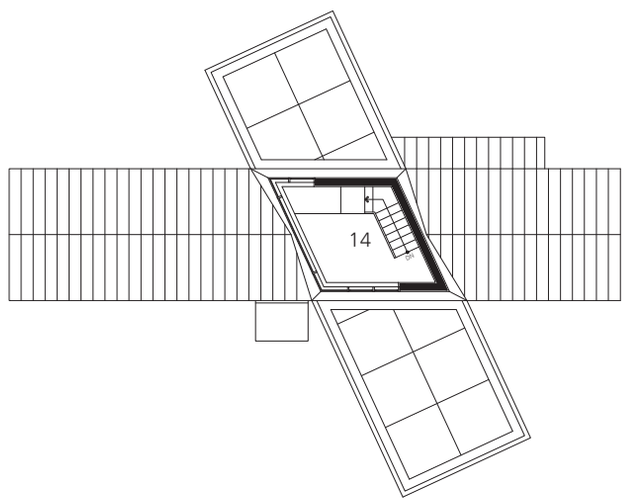
Client : Lee, Hae-kwon
Architect : Jung, woong-sik
Location : 24-7, Hogye-ro 549beon-gil,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KYUNGJAI Sructural Engineers Co.,Ltd
HVAC Engineer : Kumkang DNS Inc.
Electrical Engineer : Kumkang DNS Inc.
Finishing
Exterior : Exposed Concrete, THK22 ULIN,
THK0.5 Standing Seam Etching Copper
Interior : Environmental Friendly Water-Born Paint,
Scratched Free Stuff Red Cedar, THK10&20 Char Oak Finish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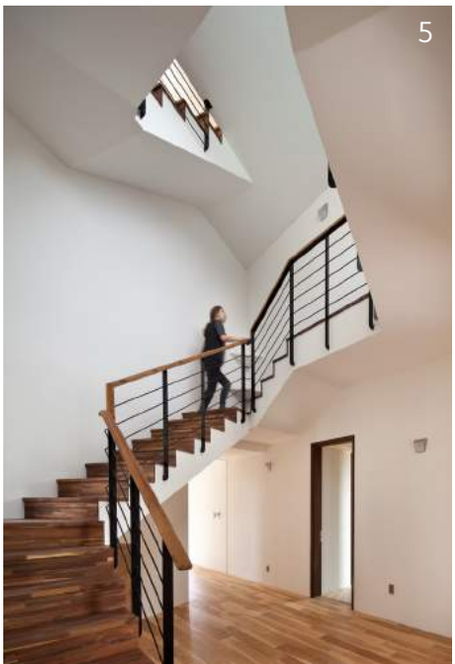
1 _ 데크 2 _ 거실 3 _ 전시공간 4 _ 다용도실 5 _ 주방 및 식당 6 _ 안방
7 _ 부부욕실 8 _ 샤워실 9 _ 작은방 10 _ 욕실 11 _ 현관 12 _ 휴게공간
13 _ 창고 14 _ 전망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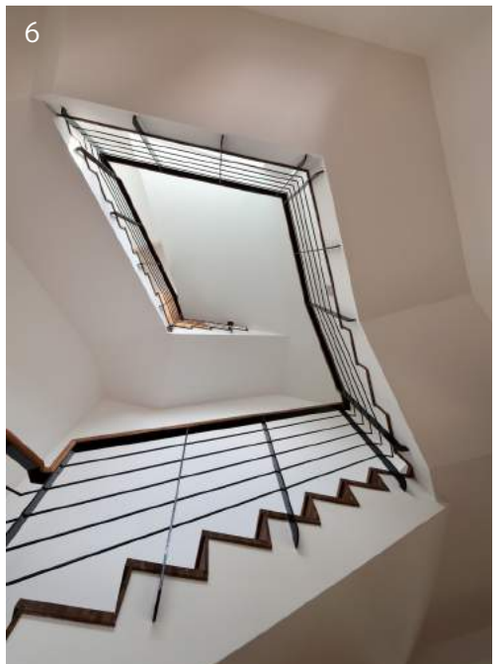
김해 향교 뒤편에 자리 잡은 주택 택지 조성지역에 위치한 대지이다. 건축주는 김해 시내가 바라다 보이는 이유로 이 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고자 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축주가 주택을 설계하고자 사무실을 찾아 왔을 때는 이미 주변에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 서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다가구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면서 건축주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변이 조성 될 것 같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맡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고자 한 것은 바로 건축주가 바라보고 싶어 하는 김해시내의 전경을 집안 공간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 주택만이 가지는 전망 타워라는 가족실을 만들었다. 또한, 이 주택만이 가지는 다른 하나의 독특한 공간은 건축주의 취미인 수석과 분재에서 아이디어 모티브가 된 주택의 전실이기도 하면서 전망 타워로 가는 수직적 전시공간이다. 주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각각의 독립된 실들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수석과 소형 분재들을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수직적 전시공간에 전시하고 동선을 순환하면서 즐기도록 하고 싶었다.

대지의 크기에 비해 건축주는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싶어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외부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주택의 가장 풍요로움은 외부공간과의 소통에서 온다고 본다. 각각의 내부 공간들이 독립된 하나의 외부공간을 가지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은 건축주가 가지고 싶어 하는 남향 햇살 가득한 거실과 안방 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연계되어 X자에 가까운 독특한 배치를 하게 되었다. X자에서 주목한 부분은 X자의 형태가 아니라 X자가 만든 사이 공간들이다. X자에 거실, 안방, 주방과 작은방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그들 사이공간에 각각의 실들이 사용할 독립된 외부 공간을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거실과 안방사이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건축주가 원하는 햇살 가득한 공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거실 앞 테라스는 경사를 활용한 대지 레벨에서 앞 정원과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누마루 사랑채처럼 뜬 구조로 하였고 하부는 그늘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무 물성을 좋아하는 건축주를 위하여 내부 문과 모든 가구들은 원목을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고 나무 조명도 직접 디자인하여 건축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소소한 부분들이 건축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1 _ 안방
2 _ 거실
3 _ 안방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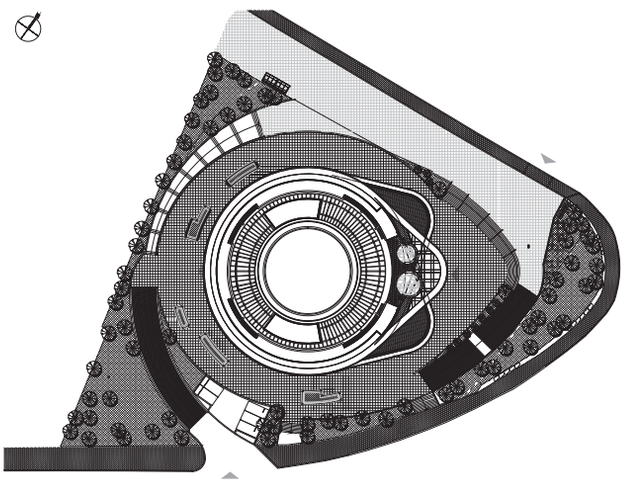
4 _ 주방
5, 6 _ 전시공간

대전 예술가의 집

Artist's house in Daejeon

설계자 | 최재인_KIRA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하였다. (주)대림산업 설계부에서 실무를 시작해서 현재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목원대학교, 우송대학교에서 겸임교수, 2014년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건축가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전광역시 건축심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종로세무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성암체육관, 아동복지관, 대전 동물원, 노은동수산시장, 대전변호사회관, 전통나래관, 대전 예술가의 집 등이 있다.



배치도

대전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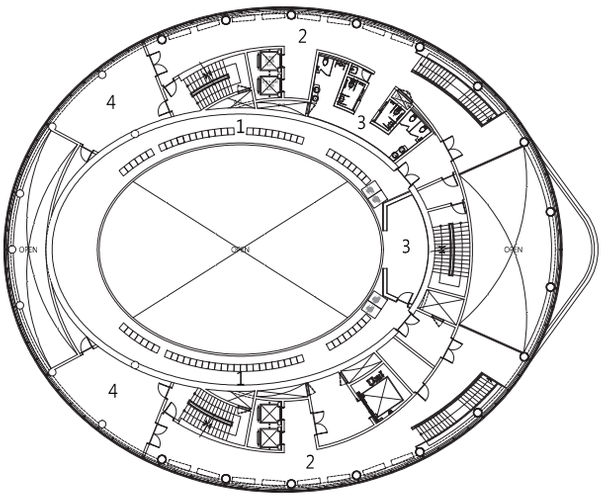
건축주 | 대전광역시장
감리자 | (주)도원엔지니어링
시공사 | 금성백조주택(주)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문화동 1-27)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6,307㎡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64.91㎡
연면적(Gross Floor Area) | 9,133.2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9.57%
용적률(Floor Area Ratio) | 95.61%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커튼월, 로이복층유리
- 내부 : 친환경 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4~2012.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10~201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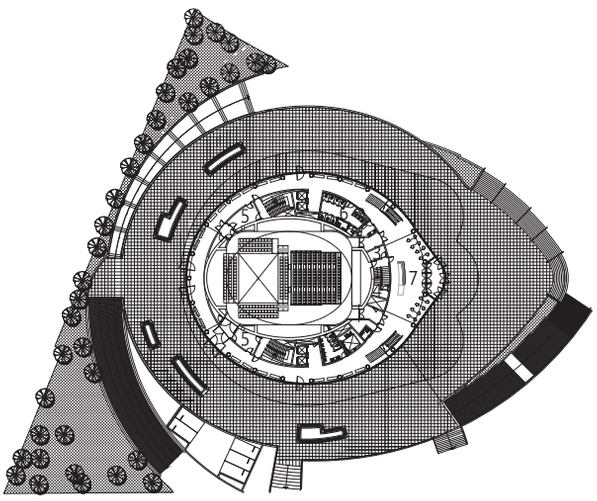
· 설계팀 : 구본관, 황현하, 한대훈, 유재용, 최용환, 정현정, Jean-Michel, 김도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신화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신화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신화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신화엔지니어링
- 유틸리티 : 신화엔지니어링

Client : Shinwa Engineering Co.,LTD
Architect : Choi Jae-in
Project Team : Gu Bon-gwan / Hwang Hyeon-ha / Han Dae-hoon / Yu Jae-yong / Choi Yong-hwan / Jung Hyeon-jung / Michael / Kim Do-hee
Location : 32, Jungang-ro, Munhwa-dong, Jung-gu, Daejeon, Korea
Structure : RC, Steel Frame
Structure Engineer : Shinwa Engineering
HVAC Engineer : Shinwa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hinwa Engineering
Fire Engineer : Shinwa Engineering
Finishing
Exterier : curtain wall, Low-E glass
Interior : Advanced Natural P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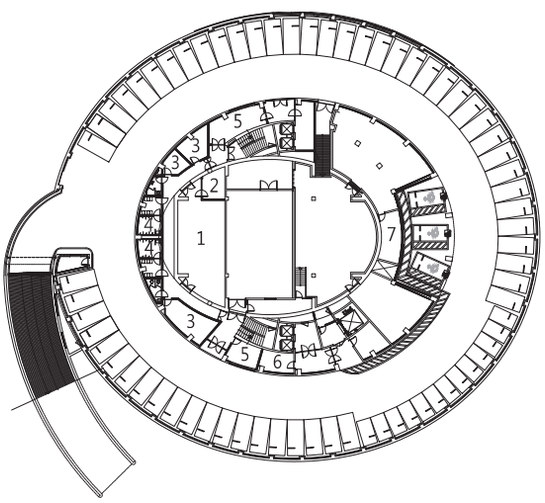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_ 발코니 객석 2 _ 전시복도 3 _ 조정실 4 _ 분장실



1층 평면도

1 _ 가변형 무대 2 _ 수납식 의자 3 _ 공연진행실 4 _ 창고 5 _ 분장실 6 _ 화장실 7 _ 메인홀



지하1층 평면도

1 _ 연습실 2 _ 무대진행실 3 _ 분장 4 _ 탈의실, 샤워실 5 _ 휴게실 6 _ 통신실 7 _ 창고

문화가 상륙하다

현대적 도시의 관건은 문화적 표현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전 세계 도시들에서는 예술, 음악, 연극, 춤 및 기타 형태의 시각예술이 개방성이란 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번창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예술가의 집은 보통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안락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지식 수준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의 집의 위치, 가시성, 기존의 맥락 내에서의 건축학적 정체성 등이 예술가의 집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의 심장부에 자리한 대전 예술가의 집은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로와 대흥로의 교차로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전 예술가의 집 부지는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며, 도로에서 3면을 바로 볼 수 있다. 주변의 훨씬 높은 건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부지이다. 따라서 대전 예술가의 집 부지는 도시내에서 프로젝트와 예술가의 집 안 무대에서 공연되는 이벤트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지표로서의 물리적 랜드마크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문화는 건축적 표현을 통해 기념할 수 있다. 대전 예술가의 집은 대전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대전 문화센터의 곡선형태는 주변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도시의 제스처

대전 광역시의 주변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복잡한 도시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대전 예술가의 집 부지는 대비를 이루는 도시 그리드가 교차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건물의 원형 형태는 북쪽, 서쪽과 남쪽이 동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비 방향적 형태를 만들어 대비를 이루고 있는 도시 그리드의 차이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욕망과는 동떨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동쪽 면은 마치 햇빛을 보기 위해 몸을 햇빛 쪽으로 굽히고 있는 꽃봉오리와 같이 정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생생하고 기념비적인 출입구 파사드를 형성하고 있다. 부지 내 건물 위치에는 두 개의 공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커다란 삼각형 모양의 플라자로서, 연속으로 이어진 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대나무 숲과 서쪽 파사드 간에 자리한 보다 친밀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 공간들은 예술가의 집 자체만큼이나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두 개의 공용 공간도 창출했는데, 하나는 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이고, 다른 하나는 야외 및 주변의 실내 갤러리에 설치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인테리어 조각들이다. 커다란 램프가 중앙로와 대흥로 거리에 이어져, 센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학적 품질

건축학적 제스처는 외도적으로 순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형태의 단순함과 원형, 부지 대비 약간의 회전을 보이고 있는 상층부 등이 특징이다. 모든 면의 파사드는 기본적으로 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서이다.

투명성

건물 상층부에 설치된 수직패널은 원할 때 개폐가 가능한 형식이다. 이 패널을 통해서 대지를 지나는 사람들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기도 하고 관심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프로젝션, 조각, 그림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지나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잠재된 소통의 여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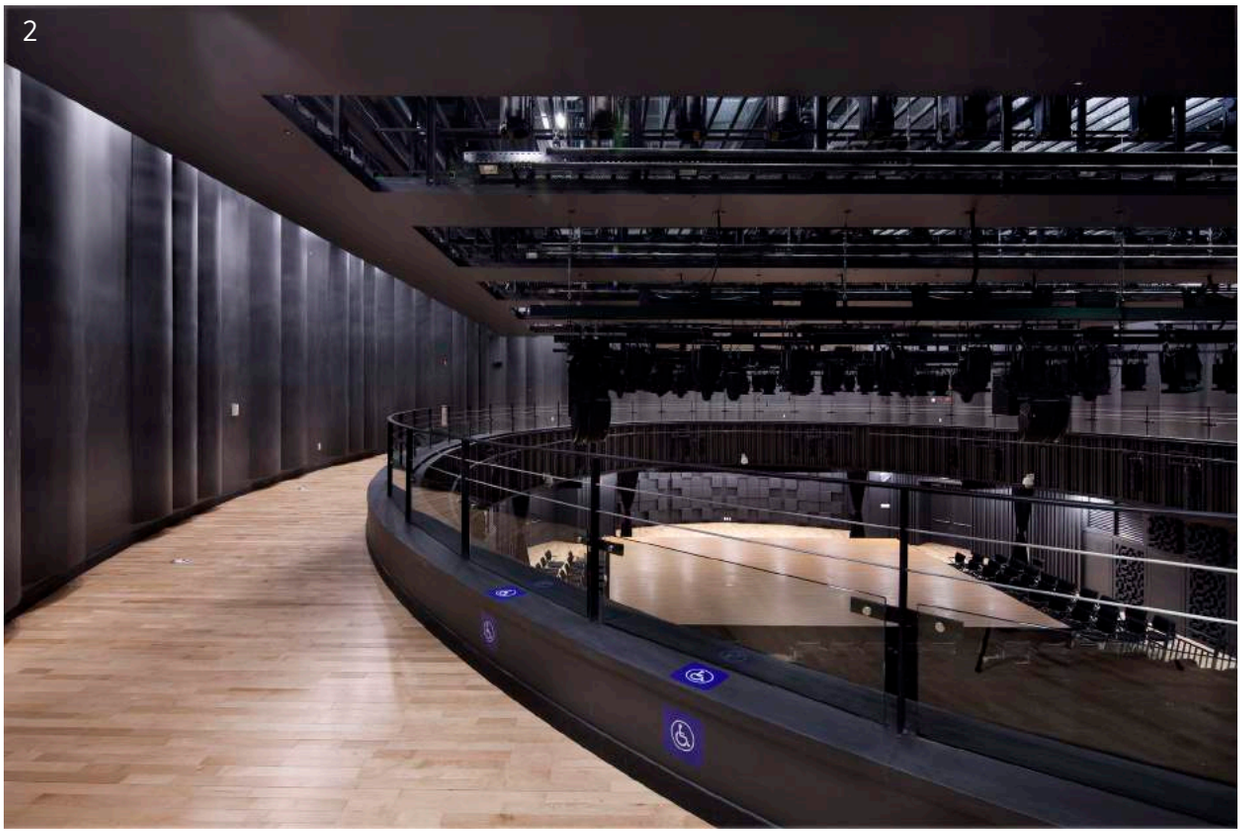
실내안락성

건물 깊숙이 조명이 비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유리 파사드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외부 패널에 의해 면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안락성이 보장되며, 인공 조명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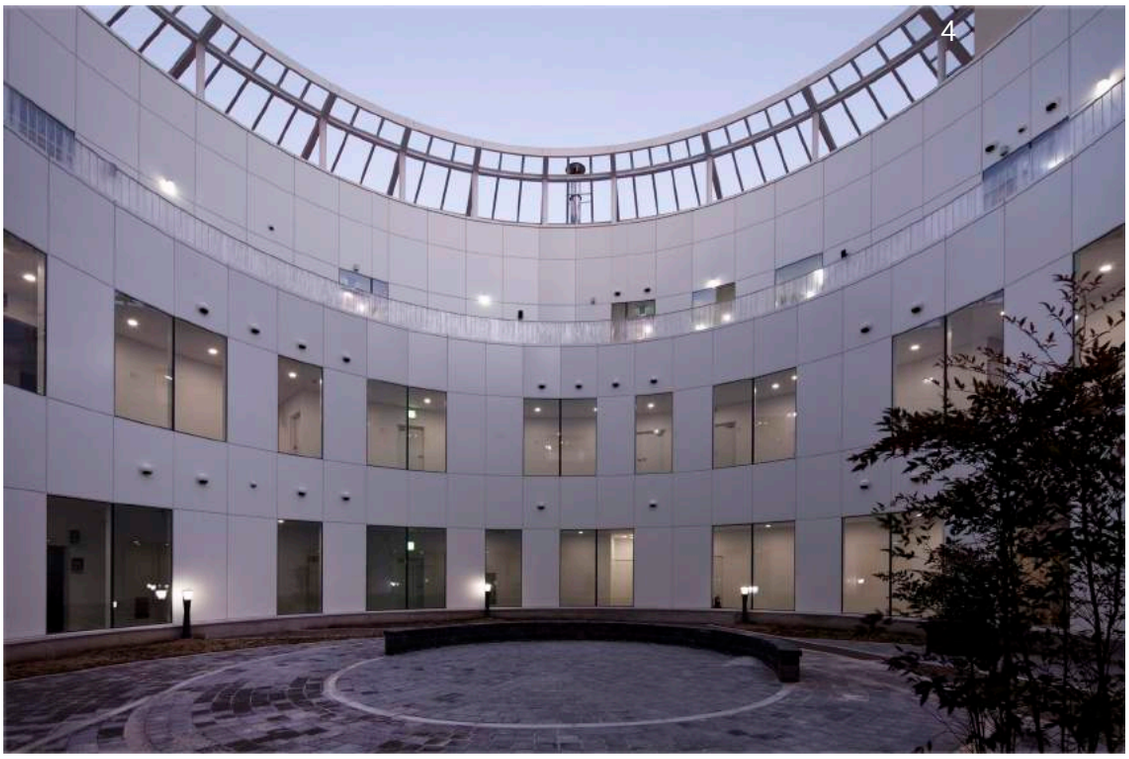
융통성

커튼 월 파사드는 공간 사용자에게 최대의 융통성을 제공해주며, 이 파사드는 '예술가의 집'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파티션을 1.6m 간격으로 배치해, 인테리어의 공간 정의와 무관하게 자연채광을 보장할 수 있다. 보다 과감하게는 각 상층부는 상화교환이 가능해서 계획에 따라 혹은 부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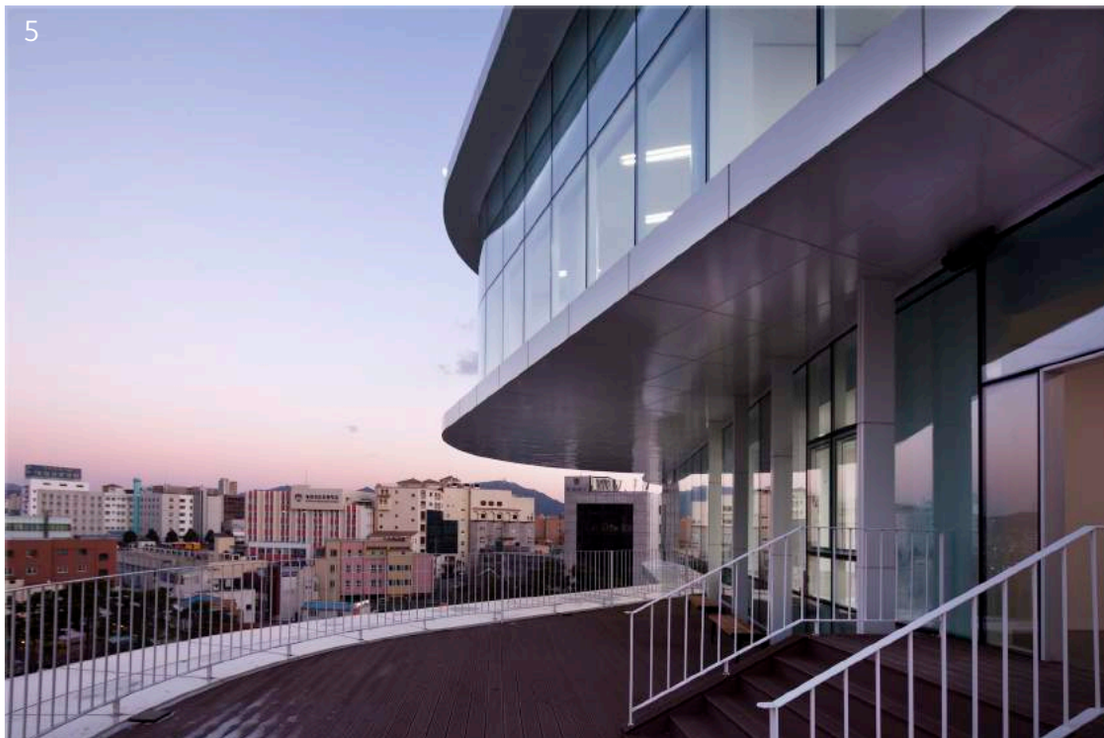
1



2



1 _ 지상1층 로비 계단
2 _ 지상1층 가변형 무대
3 _ 지하1층 가변형 무대
4 _ 지상3층 중정
5 _ 지상4층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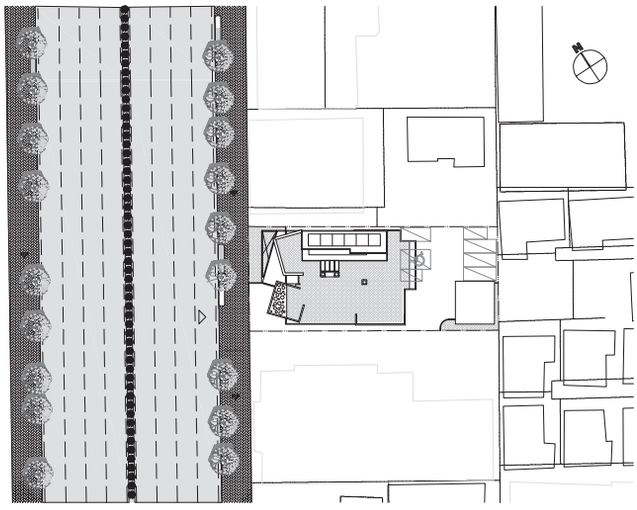


만남빌딩

MANNAM Building

설계자 | 황중규_KIRA
동서 건축사사무소

동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로,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창원지방법원 건축감정평가위원, 창원시 건축설계자문위원, 창원시 건축작품 심사위원 등을 역임 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송정리치상가(2005 창원시건축대상제 동상), 창원시립가음동어린이집(2006 창원시건축대상제 은상), 진해석동초등학교(2003), 밀양수산새마을금고(2005), 진동도만마을회관(2009), 고성앤화이트(2012) 등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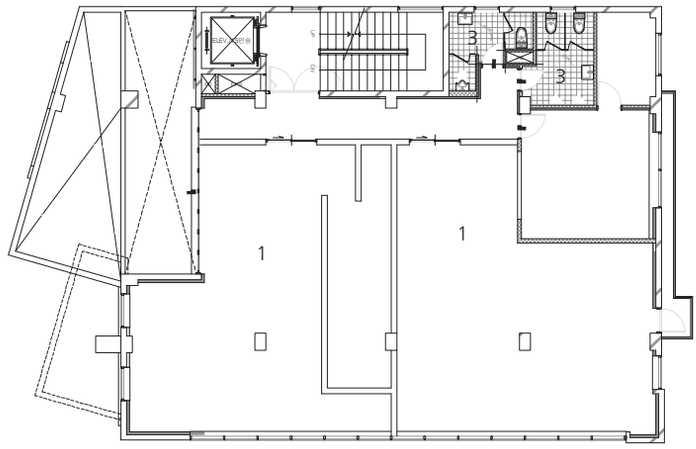
건축주 | 정두혁 외 7인
감리자 | 동서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센텀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68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업무시설(오피스텔)
대지면적(Site Area) | 728.6㎡
건축면적(Building Area) | 396.2㎡
연면적(Gross Floor Area) | 1,685.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4.38%
용적률(Floor Area Ratio) | 231.3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8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실리콘페인트
- 내부 : 천연페인트, 에폭시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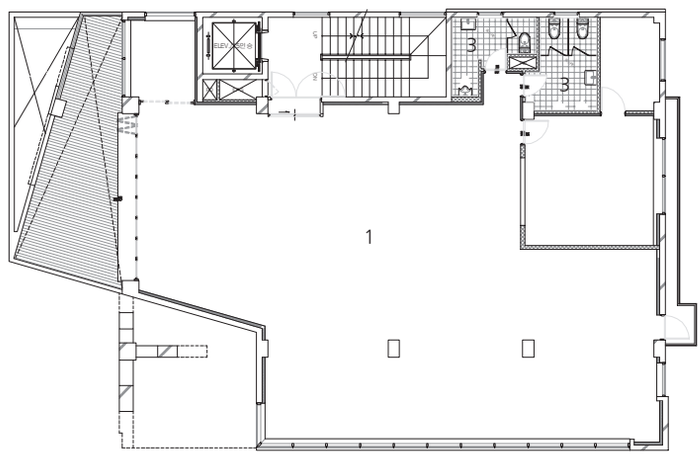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9~2013.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1~2015. 03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청우구조안전기술
- 기계설비분야 : 라인설비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주)선진이엔지
- 소방분야 : 대건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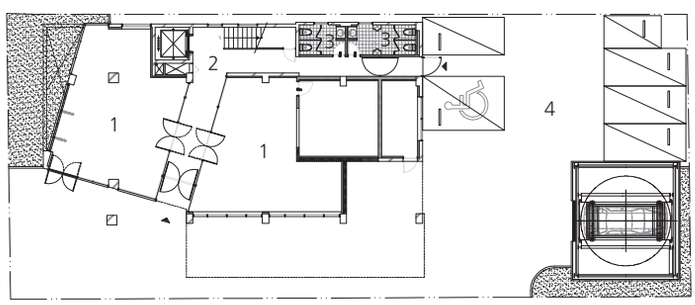
Client : 7 besides Jeong. Du Hyeok
Architect : Hwang. Jung-kyu
Location : 668, 3·15-daero, MasanHoewo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Cheongwoo Safety Technology Co.,Ltd
HVAC Engineer : Line MEG
Electrical Engineer : Sunjin Eng Co.,Ltd
Fire Engineer : DeaGun Engneering
Finishing
Exterier : Exterior Silicone Paint
Interior : Advanced Natural Paint, Epoxy Coating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_ 근린생활시설 2 _ 홀 3 _ 화장실 4 _ 주차장

2013 여름 지명설계경기로 참여하게 된 설계경기 프로젝트로 상업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40m대로변에 위치한 대상지이다. 주변가로의 분위기는 대로변 미관지구임에도 특색 있거나 세련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250m거리의 경남은행 본점을 제외하고 인근에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건물이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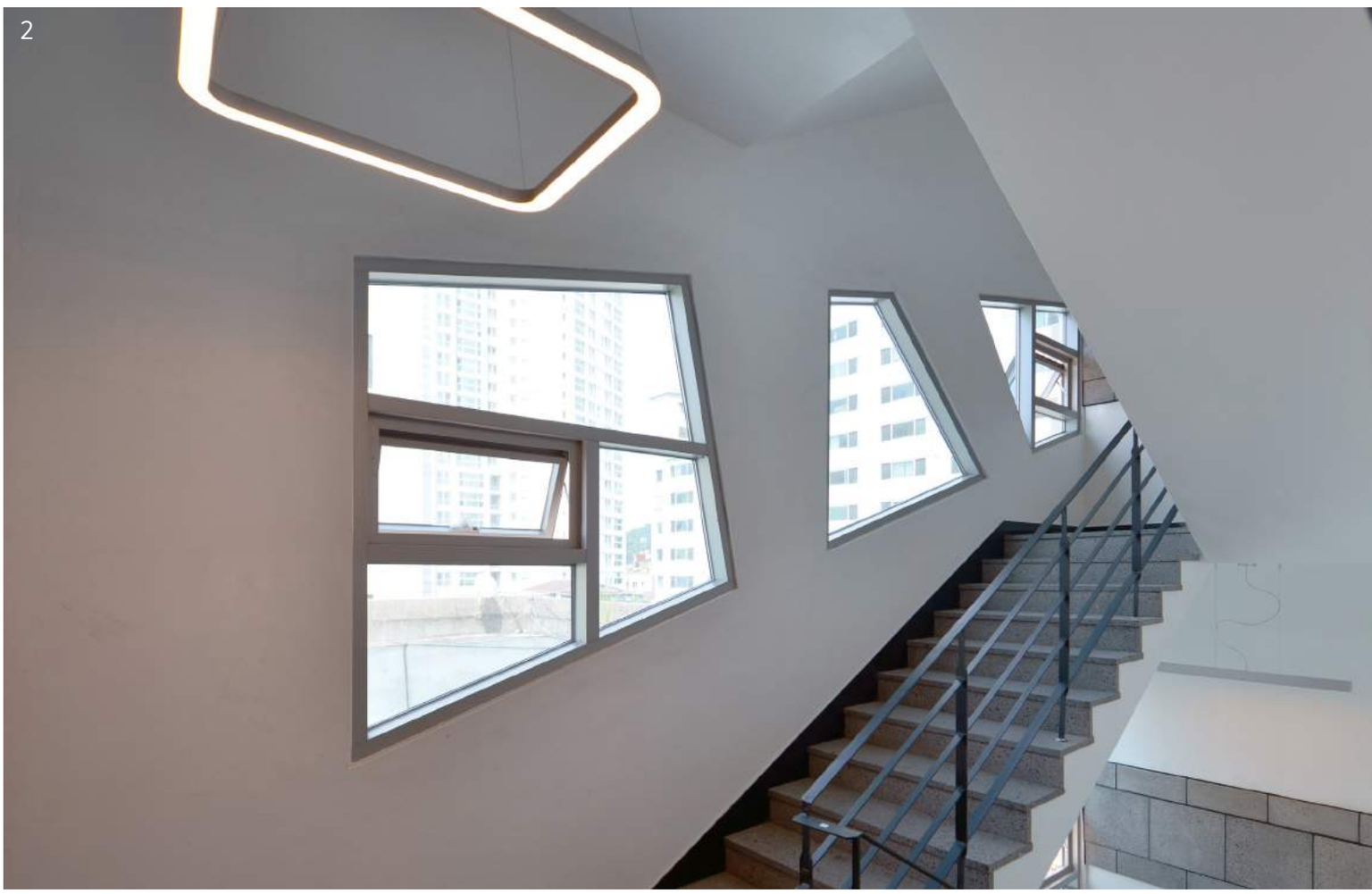
건축주는 8남매로서 대상지에 국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색 있는 디자인의 새 건물을 원하고 있었으며, 함께 거주할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용 근린생활시설을 필요로 하였다.

계획의 주안점은 상가에는 특성상 적극적인 동선의 유도를 통한 접근성의 활성화와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공간감을 통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의 배려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에 있다.

동선은 우측의 파란 기둥을 통해 동선을 유발하고 출입동선을 사선으로 계획하여 속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층과 삼층의 난간을 사선 방향으로 형성하여 움직임에 따라 건물의 인상이 다양하게 인식 되도록 하여 공간에 활기를 주도록 계획하였다. 전면부는 상징성 있는 공간과 만남의 장이 되도록 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 우측전면으로 파란나뭇가지기둥과 개구된 가벽을 통해 활성외피의 빛나무를 형성하고, 좌측전면으로 노란나뭇가지기둥과 징크메스를 통해 조각나무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빛나무는 낮에는 변화하는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가 드리우도록 하여 공간에 활력을 주도록 하였으며, 밤에는 경관조명을 통해 빛나는 나무가 되도록 하여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고양하고 랜드마크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5, 6층 홀에는 중정을 두어 공간에 빛이 충만하도록 하였고 중정을 중심으로 자연과 접하고 건축주들이 관계 하도록 계획하였다. 옥상은 조경을 통하여 도시속의 정원을 형성하여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건축주들의 모임과 친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계획하였다.

1



2

1_ 야간벚나무 2_ 계단실 3_ 옥상정원 4_ 5층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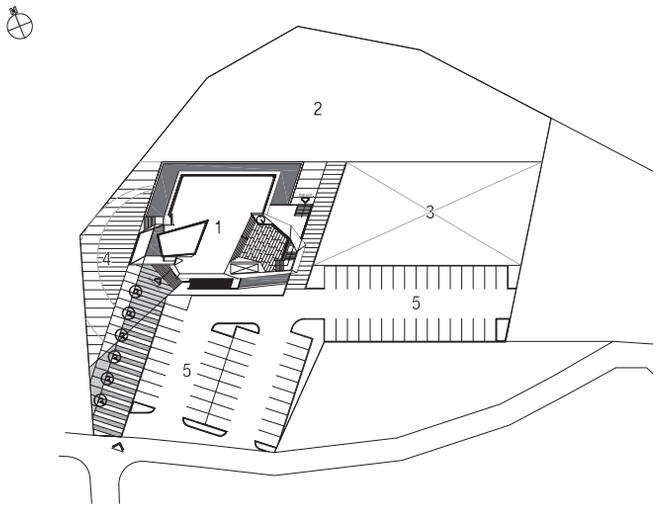
해어름

Haearum

설계자 | 이훈정_KIRA
이훈정 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현재 세종시에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SK텔레콤 대전사옥(건축문화대상 일반건축물 본상), 대전노은7BL 계룡아파트(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주상복합, 파주 클럽하우스, 삼성 SOFTWARE 연구소, 삼성전자 동서울물류센터 등이 있다.

1_ 해당 건물 2_ 야외 조경 3_ 증축부지 4_ 조각공원 5_ 주차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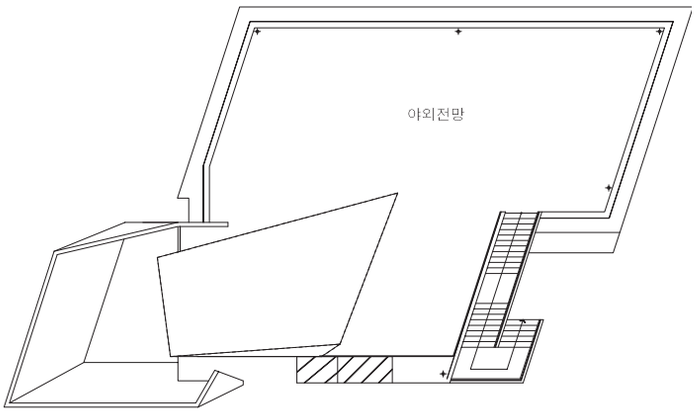
건축주 | 이옥환
감리자 | 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성지우종합건설

대지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해변길 144
주요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대지면적(Site Area) | 1,631㎡
건축면적(Building Area) | 524.14㎡
연면적(Gross Floor Area) | 703.3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2.14%
용적률(Floor Area Ratio) | 43.12%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노출콘크리트, 리얼징크
- 내부 : 노출콘크리트, 압출성형시멘트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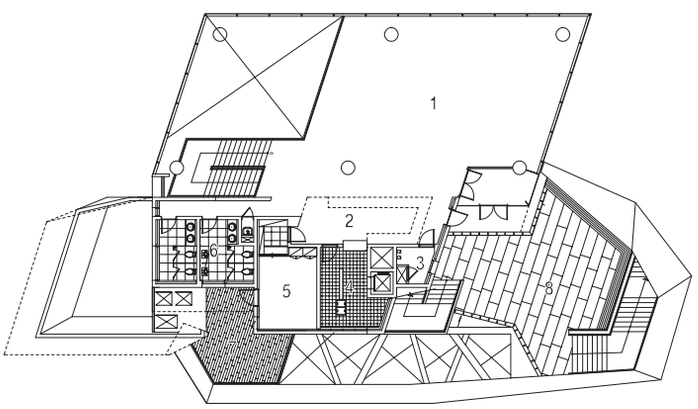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9~2012.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5~2014. 03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주)대림엠이씨
- 전기분야 : (주)대림엠이씨
- 소방분야 : (주)대림엠이씨

Client : Lee, Ok-hwan
Architect : Lee, Hun-jeong
Location : 144, Maesanhaebyeon-gil, Sinpyeong-myeon, Dangjin-si, Chungcheongnam-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Dosi Architecture Firm
HVAC Engineer : DaeLim MEC
Electrical Engineer : DaeLim MEC
Fire Engineer : DaeLim MEC
Finishing
Exterier : Exposed concrete, Real zinc
Interior : Exposed concrete, Extrusion moulding cement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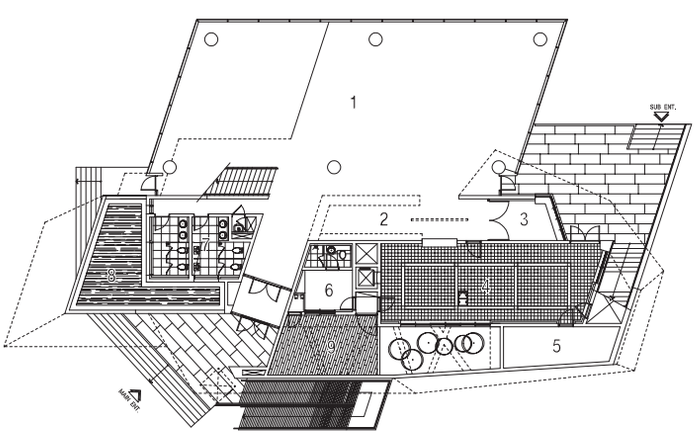


옥상 평면도



2층 평면도

1 _ 접객공간 2 _ 안내 3 _ 창고 4 _ 주방 5 _ 직원휴게실
6 _ 화장실 7 _ 휴게데크 8 _ 야외전망공간



1층 평면도

1 _ 접객공간 2 _ 안내_1 3 _ 안내_2 4 _ 주방 5 _ 식창고
6 _ 직원휴게실 7 _ 화장실8 _ 인공연못 9 _ 휴게데크

매산리 바닷가에 카페설계 의뢰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가을 해질 무렵이었다.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지는 3면의 바다위에 서 해대교와 노을을 바라보고 추수를 앞둔 너른 누런 평야를 등지고 있다.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이기심을 갖게 하는 장관이다. 인공(人工)은 어울리 않는 곳이다.

순간 계획은 명쾌하게 정리된다. 바다 3면을 바라보도록 객실을 배치하고 반대쪽에 이를 서비스하는 공간을 배치한다. 서비스 공간은 자연을 닮은 노출 콘크리트로 잘 포장하여 찾아오는 이에게 바다 대신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후 커튼월을 통해 펼쳐지는 자연경관이 더욱 드라마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통해 연출하고자 했다.

건축물의 형상은 오랫동안 바닷물로 탁마된 자연석을 닮았고, 곧 출항할 배를 닮았다. 바라보는 위치마다 형태를 달리하고 특히, 바다와 하늘을 투영하는 유리외벽은 건물을 한층 상쾌하게 한다.

*해어름 – '해거름(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의 충남지역 방언

1~3 _ 1층 내부

4~5 _ 2층 내부

용문동주택

House in Yongmun-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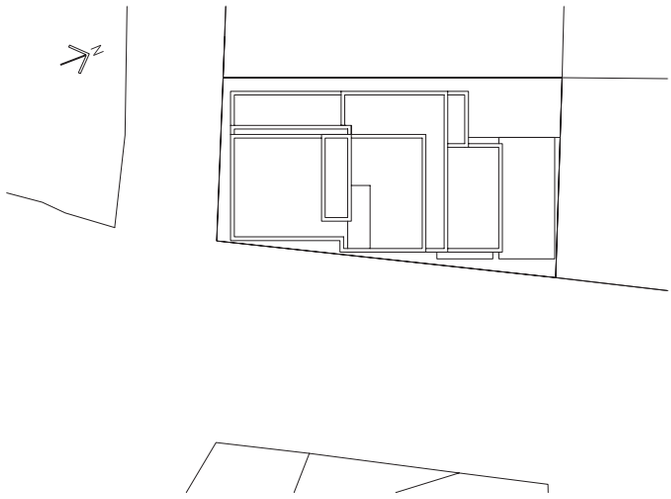
건축주 | 성재용
감리자 | 터·울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성재용

대지위치 | 용산구 용문동 38-183번지
주요용도 | 다가구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104.5㎡
건축면적(Building Area) | 60.35㎡
연면적(Gross Floor Area) | 199.7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75%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1.11%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적벽돌, 노출콘크리트
- 내부
  바닥 : 투명에폭시, 타일, 목재널
  벽 :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노출콘크리트
  천정 :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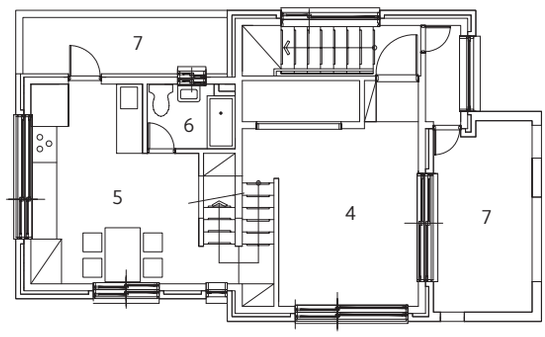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11 ~ 2014.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4. 05 ~ 2015. 02
사진(Photographer) | 김석환(Kim, Suk-hwan)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석산구조
- 기계설비분야 : 일조설비
- 전기분야 : (주)한국안전기술단

Client | Choi, Eunseok
Architect | Oh, Sinwook
Location | 38-183, yongmoon-dong, yongsangu, Seoul, Korea
Structure | Ra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Seoksan Structural Engineers
HVAC Engineer | Ilzo Engineers
Electrical Engineer | Korea Safe Engineer Group
Finishing |
Exterior : Red Brick, Concrete
Interior : Water Paint, tile, 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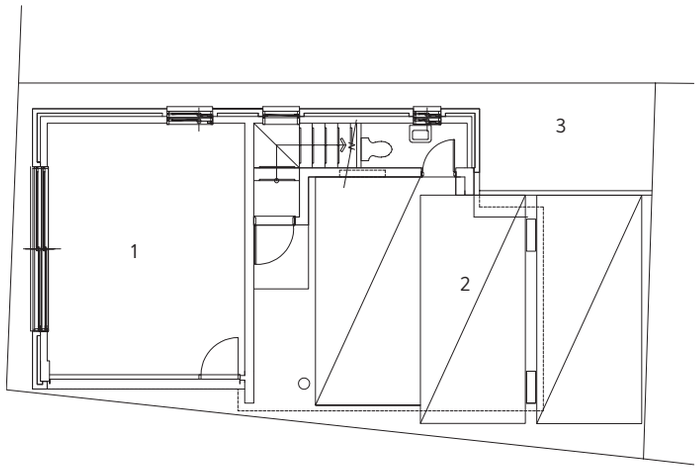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1_근린생활시설 2_주차장 3_화단 4_거실 5_식당 6_욕실 7_테라스



1층 평면도

설계자 | 김석환_KIRA | 터·울건축사사무소
서울 시립대 건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도시건축 등에서 실무를 쌓은 후 1994년 터·울건축을 개설하여 작품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서울산업대, 광주대, 삼육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1999년 건축문화의해 초대작가 및 서울시 MP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0~1997 르 꼬르뷔지에의 생애와 건축 기행을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일산신도시K씨주택, 곤지암주택. 청풍헌, 목마도서관 등이 있다. 저서로는 건축작품집 '본연성,덤덤함','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 등이 있다.

1

1 _ 4층 식당 2, 3 _ 계단실 4 _ 측면 전경 5 _ 거실 내부창 6 _ 거실과 테라스

2

3

이 주택의 대지는 용문시장 건너 주택가의 가로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이 주변은 얼마 전까지 바둑판처럼 분할된 가로의 대지위에 1980년대 지어진 2~3층 건물들이 연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주택들을 헐고 다세대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과거의 건물들이 1층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2층의 평지붕 구조에 처마가 나와 있고 옆으로 긴 석재로 마감한 '유형' 이었다면 지금은 1층 필로티 주차장 위로 4층 정도 주거를 두고 외부는 거의가 얇은 판석을 마감한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어느 날 건축주가 찾아와 규모가 32평 밖에 되지 않는데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겠느냐며 건축을 상의했다. 얼마 후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친근한 물성이 베어나며 단아하면서도 정감 있는 건물이 되게 하려는 생각들을 설명했다. 건물 매스는 건물 우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웃집의 일조권 확보에 필요한 규정선 내에서 계단식 층차를 두며 set back해 테라스를 만들고 일조권과 무관한 부분은 반 층을 더 높였다. 그리고 그러한 레벨과 층차를 갖고 후퇴하는 매스의 변화를 공간적 변화와 다양한 건축적 어휘로 살려내고자 했다. 그리고 오래된 문화유적을 대할 때처럼 질박하고 단아한 느낌이 풍기는 건물 안에서 다양한 삶의 행태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표정 짓는 공간의 감각을 대하며 생활의 즐거움이 유발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각층의 공간이 포도송이가 열리듯이 자연스러운 구성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동선에서 비롯된다. 마치 주택 내의 산책길이 나 있는 것처럼 지반부터 옥상까지 길이 관통되어 있는데 건물 내부에서 길에 면한 가로 풍경을 체험하듯 자연스런 표정을 띠게 했다. 특히 4,5층을 모두 주인이 거주하는 한 세대로 구성하면서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길을 지나듯 반층씩 오르내리며 각 실들이 연결되도록 하여 실의 독립성과 공공적 성격의 공간이 우연히 조우하며 다시 다른 공간으로 연속되는 변화와 4층 거실과 식당 사이에 낸 내벽의 개구부를 통해 다양한 시선의 풍경을 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4층 거실 바깥에 일조권 높이까지 벽을 쌓아 벽으로 둘러싸인 외부 마당을 형성하였다. 3층까지는 임대주택 세대가 놓이고 4층과 5층은 주인가구로 꾸몄는데 계단 하부와 어긋난 계단실의 자투리 공간, 계단실 상부의 벽장 설치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들의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가구를 설치하여 풍요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당선작

General information center
for forest products distribution

발주자 : 산림조합중앙회
설계자 : 남상득_KIRA | (주)씨엔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백유미, 이승환, 권순찬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113-7
대지면적 9,973㎡
건축면적 2,011.38㎡
연 면 적 3,011.77㎡
건 폐 율 20.17%
용 적 률 22.50%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마 감
- 외부 : 목재널,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시트, 칼라로이유리, U글라스
- 내부 : 목재 마감, 에폭시 마감

목오감(木五感)

단순히 보여주는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종합정보센터에서 벗어나 사람과 나무, 자연과 미래가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설계 컨셉으로 하였다. 즉, 미각·시각은 물론 청각·후각·촉각 등 관람객이 직접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자연공간을 조성하였다.

건축계획

건축물은 3동 5개의 공간이 중앙에 집중하도록 코아, 화장실 등을 중앙 데크 부분에 설치하였고, 건물 양 외곽으로 옥외계단을 통하여 주차장과 옥외체험 공간으로 각각 연결된다. 임산물 체험 식당은 크게 셀프식당, 전문식당, 스넥·카페테리아 등 3개로 다양화 하였다.

입면계획

저층으로 긴 입면이 지루하지 않도록 유리, 목재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변화를 주고 수평과 수직의 조화를 이루었다. 특히 좌측건물의 경사로와 우측건물의 경사지붕의 사선, 그리고 홍보관의 타원형태가 서로 어우러져 조화롭고 세련된 입면을 완성하였다.

전시계획

홍보관은 목구조를 채택하여 임산물 전시 홍보관으로서의 그 의미를 더하고 전시, 영상, 세미나, DIY 등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다. 스토리라인에 따른 전시동선에 외부 체험공간을 추가하여 훌륭한 체험학습장을 계획하였다.

木五感
목 오 감

사람과 나무의 소통공간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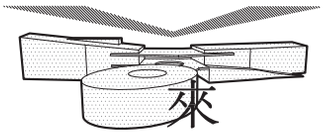
FUTURE
FOREST

-기능성 · 쾌적성 · 경제성을 모두 갖춘 참여형 전시관을 구축

-미래로 향하는 종합정보센터 구상

미래마당
Future-gallery

임산물종합센터의 미래를 제시하는 신개념 랜드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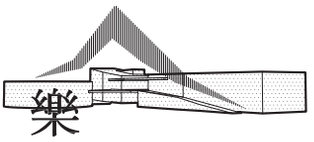
EXPERIENCE
FOREST

-자연 · 문화 · 사람이 서로 소통 · 교감하는 체험공간

-미각 · 시각 · 청각 · 후각 · 촉각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현장

체험마당
edu-playground

교육과 놀이, 먹거리가 결합 된 체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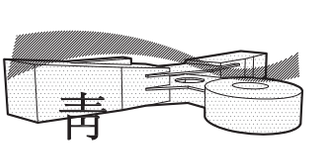
LIVE
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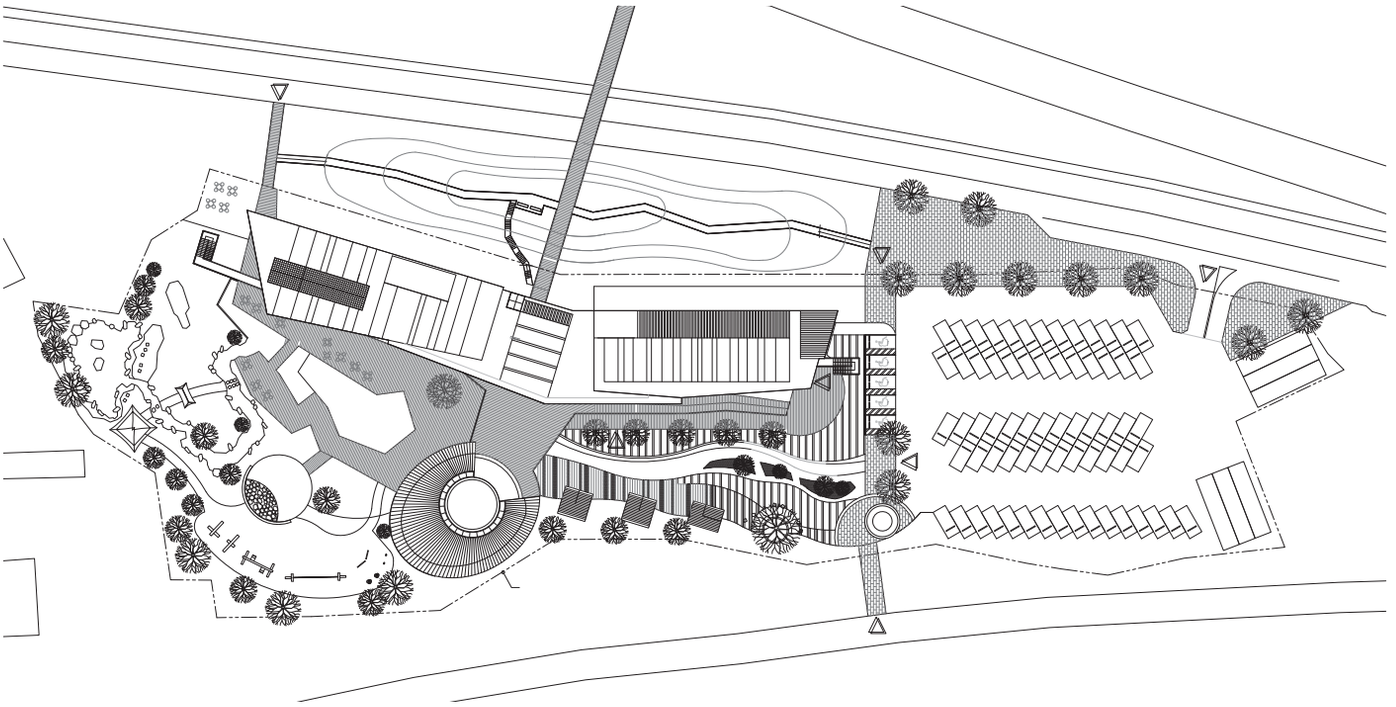
-기존지형을 그대로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

-세련된 디자인과 상징적 입면계획으로 자연 친화적인 종합정보센터 구현

친환경마당
eco-tecture

자연의 소재와 에너지 절감의 친환경공간





글. 김주덕_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건축사 보수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Definite way to get certified architect's pay

1. 건축사는 법을 싫어하는가?

최근에 건축사 한 분을 만났다. 설계·감리를 해주었는데, 설계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소송을 하자니 법은 잘 모르겠고, 소송비용은 들어갈 것 같아서 여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고 했다. 설계·감리를 마치고 건물은 완성되었는데, 건축업자와 분쟁이 생긴 것을 핑계로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다. 설계·감리비를 건축업자에게 일괄해서 주었다는 취지였다. 건축사는 애써 설계도서를 완성해서 건물을 다 짓도록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았는데, 설계·감리비를 떼어먹으려고 하니 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세월이 빨라 벌써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사를 만나보았다. 건축사는 이과 계통에서 건축학을 연구한 분이라 변호사와는 다르다. 법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부터 아파한다. 그건 이해가 간다. 변호사인 나도 수학이나 과학 이야기만 나오면 아예 깊이 생각할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보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설계·감리를 맡을 때 의뢰인과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도장을 받아 놓고 만다.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별도로 특약사항을 확실하게 기재해 놓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한다. 나중에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도록 한다.

그러나 법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만을 보호한다.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건축사는 의뢰인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다음,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많은 건축사 분들이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단순한 요식행위로 이해한다. 하지만 계약은 매우 중요한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형법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법률행위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체결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재벌 회장이 현금 10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겠다고 자필로 써주면, 그 종이를 가지고 즉시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만일 그 회장이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장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행판결을 법원에서 받은 다음, 강제집행해서 현금을 받아올 수 있다.

참고로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554조). 최근에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생전에 편법으로 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적게 내려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여제도이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구속력을 가진다. 헌법이나 법률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이지만, 계약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곧바로 효력을 가진다. 계약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의 문안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부담하게 될 계약상의 의무조항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계약(契約)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청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계약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장황하게 풀어보았다. 사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나치게 한자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특히 오늘날과 같은 한글세대에게는 마치 무슨 암호 같다. 쉽게 해독할 수 없는 퍼즐과 같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급적 일반인이 알기 쉽게 법적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건축사는 건축주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가? 이른바 설계·감리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주된 내용은 건축사는 특정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해준다.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업무를 대행해준다. 건축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아준다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인 건축주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service)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의 각 의사표시를 서면에 기재해 놓는 것이 바로 설계·감리계약서이다.

설계·감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때로는 그 내용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민법 제680조). 이에 대하여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설계·감리계약은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기로 하는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건축사는 설계·감리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무리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법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나중에 딴소리를 해보았자 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언제 설계·감리비를 청구해야 할까?

건축사는 의뢰인과 사이에 설계·감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해 자신에게 주어진 설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감리를 마치면 계약서에 따라 설계·감리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설계·감리비를 계약금, 중도

금, 잔금의 형태로 구분하여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명목의 대금을 받게 될 조건이나 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성취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즉시 설계·감리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알기 쉽다. 설계를 맡겼는데, 제대로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설계가 잘못되어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하면 상대방인 건축주는 당장 난리를 치게 된다. 끝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설계·감리 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각자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챙기려고 한다. 그런데 건축사만 자신의 용역은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설계·감리비가 아예 소멸하는 수도 있다

건축사가 계약대로 다 설계·감리를 마쳤는데도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있을 때 차일피일 시간 이 지나가면, 설계·감리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아무리 큰 금액이라고 해도 법으로는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효(時效)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효과로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권리의 취득효과를 가져오는 취득시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법에 있어서 시효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권리 자체가 소멸하거나 취득되는 무서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다른 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이든지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논이나 밭을 타인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경작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법률상 그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이전된다.

소멸시효는 더 큰 문제이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그런데, 건축사의 설계·감리비는 예외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의 설계비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설계·감리비는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주지 않으면, 건축사로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은 또한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8조). 이때 청구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신청과 임의출석, 최고등을 의미한다.

5. 설계·감리비 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건축사가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완성해서 건축주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건축주가 설계도서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설계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건축주가 당초 계획했던 건축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든가, 설계사무실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맡겼던 설계를 중간에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설계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설계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건축주가 계약을 도중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때까지 자신이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만일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는데,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한 두 차례 전화로 지급을 요구하고, 안 되면 서면으로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지급요청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시켰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가 설계비청구사건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과,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해서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아! 건축사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정식으로 청구를 하고 있구나.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고, 소송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 올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상대방은 그냥 건축사가 전화로만 독촉을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가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통지서를 받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 약간의 보수만 지급하면 된다. 정식으로 소송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 빨리 법적인 조치를 시작하자 –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예정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독촉장을 보낼 필요는 없다. 공연히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양식을 찾아 건축사가 직접 작성하면 된다. 현재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소송은 인터넷 검색 창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http://ecfs.scourt.go.kr을 입력하여 진행하면 된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의 제출, 송달, 비용납부, 사건기록열람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소송에서도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등 지정된 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건축사가 보수를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인 건축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다. 건축주에게는 대체로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거액의 설계·감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리고 무자력자가 되기도 한다. 아니면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바뀌거나, 건축주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판결이 나기 전에 부동산등을 가압류해놓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봤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7. 맺는 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경제는 매우 심각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설계·감리비를 못 받게 되면, 사전에 지출하는 인건비나 외부용역비 등을 손해 보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체결을 제대로 하고, 계약이행상황에 따라 설계·감리비를 확실하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재산가압류,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제기 등을 신속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serial

글. 김홍기 |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요셉 호프만과 스토클렛주택 / 총체예술의 원류
6.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빛과 침묵, 건축의 본질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8. 호세 루이스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 건축의 낭만성
9. 반 되스버그와 미스 / 러시아 댄서에 매혹된 근대
10.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11. 인젤 홈브로이히와 랑엔미술관 / 폐허 속에 꽃핀 예술의 공동체
12.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 색채와 음악, 공감각의 배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장과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AIDIA) 회장을 역임했고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로빈슨 쿠르소가 건축가라고> <건축조형디자인론> 등이 있으며, 건축문화예술에 관한 강연 및 연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축오디세이 4 _ 현대건축의 실험실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 가구단지

Rolf Fehlbaum and Vitra Campus / Laborator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그림 1) 비트라디자인미술관 입구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

스위스 국경에 접한 독일 최남단 도시 바일 암 라인(Weil am Rhein). 인구 3만 명의 작은 마을에 기이한 형태의 미술관이 완공된 것은 1989년 11월 3일이었다. 그로부터 엿 새가 지난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변방에도 들려온다. 1980년대 후반은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정치적 격변기로, 건축 또한 이 시기에 대변혁의 물꼬를 튼다. 그 변화는 1988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해체주의 건축전'에서 촉발된다. 뉴질랜드 출신의 젊은 건축 역사학자 마크 위글리와 필립 존슨이 공동 기획한 이 전시회에는 프랭크 게리와 코프 힘멜블라우, 자하 하디드, 베르나르 츄미, 다니엘 리베스킨트, 피터 아이젠만, 렘 콜하스 등 파괴적인 기하학을 사용한 일곱 명의 건축사들의 작품이 초대되어, 현대건축이 정형에서 비정형으로 전환됨을 선언하게 된다. 해체주의 건축전은 1980년대를 뜨겁게 달구던 장식성향의 포스트모던 건축에 대한 종언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복잡계와 탈구축으로 향한 궤도수정의 시그널이기도 했다.[1] 이러한 징후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 다음해인 1989년 프랭크 게리에 의해 비트라 디자인미술관이 완공됐고 1993년에는 하늘을 향해 콘크리트 칼날을 들이댄 자하 하디드의 비트라 소방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건축계는 이때부터 비트라 가구단지를 주목하게 된다. 1999년에야 비트라 가구단지를 찾은 필립 존슨은 이날의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다.

"1927년 슈투트가르트에 세워진 바이젠호프 주거단지 이래로 가장 뛰어난 건축사들의 작품을 한 장소에 이처럼 모아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우 독창적인 건축사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건축 컬렉션을 보는 듯합니다."

필립 존슨의 언급처럼 미스 반데 로에가 코디네이터가 되어 1927년 완공된 바이젠호프 주거단지(Weissenhof Siedlung)는 오늘날 '근대건축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린다. 월터 그로피우스,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데 로에, 한스 샤로운 등 근대건축을 리드한 열여섯 명 건축사들의 주택 작품들이 한 단지 내에 보존되어 있어, 이곳을 둘러보면 근대건축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현대건축의 실험실로 불리는 비트라 가구단지는 오늘 날 대표적인 현대건축의 순례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트라 캠퍼스(Vitra Campus)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현대건축의 경연장 곳곳에는 비트라 회장 롤프 펠바움의 건축적 혜안이 숨어있다.

그림 1) 비트라디자인미술관 입구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

1) 근대건축의 지나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반발하여 생긴 포스트모던건축은 모더니즘이 배척했던 역사적 건축양식과 장식적인 요소와 상적성을 부활시켜 1980년대 화려하게 등장했다.

롤프 펠바움의 건축적 혜안, 위대한 실험

매년 3월 하순이 되면 건축계는 술렁인다. 올 해의 프리츠커 상 수상자에 주목한다. 수상자가 발표될 때면 아홉 명 이내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명단이 함께 공개되는데, 비트라 회장 롤프 펠바움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 번도 심사위원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었다. 그의 전공은 철학과 사회학이다. 비전공자가 최고 권위의 건축상 심사위원을 맡은 이유가 무릇 궁금하지만 그의 행적을 알고 나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1981년 비트라 가구단지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 공장 절반 이상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지만, 비트라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복구 작업을 서두를 수 있었다. 화재가 일어나기 6개월 전 회장 롤프 펠바움은 영국 바스(Bath)에 위치한 허만 밀러 가구공장을 둘러본다. 금속 패널로 지어진 하이테크 디자인의 공장건물에 크게 매료된 그는 내친 김에 공장 설계자인 니콜라스 그림쇼(Nicholas Grimshaw)의 사무실을 찾아간다. 화재의 악몽에서 벗어나 복구 작업에 나설 때 영국 공업건축의 정밀함과 세련됨이 묻어있는 니콜라스 그림쇼를 제일 먼저 떠올린 이유이다. 그에게 공장 설계를 의뢰했고 개략적인 마스터 플랜도 얻어냈다.

그림 3) 1991년 바일 암 마인 비트라 가구단지에 모인 건축사들(왼쪽 두 번째부터 자하 하디드, 니콜라스 그림쇼, 프랭크 게리)

1987년부터는 훗날 건축계 슈퍼스타가 되는 건축사들에게 공장의 건물을 단계적으로 의뢰하는 지략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한 번도 건축활동을 해 본 적이 없는 캘리포니아 건축사 프랭크 게리에게 먼저 미술관 건축을 맡겼고, 1990년대 초반까지 실현된 건물이 없었던 자하 하디드에게 소방서 건물을,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안도 다다오에게 컨퍼런스 홀을 맡겨 글로벌 건축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라크 출신의 자하 하디드는 칼날을 연상시키는 소방서 건물로 단숨에 건축계의 전면에 나섰고, 프랭크 게리 역시 비트라 디자인미술관을 디딤돌로 삼아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을 설계하므로서 당대 최고의 건축사로 등극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포르투갈의 거장 알바로 시자, 바젤 출신의 듀오 건축사 헤르조그와 드 뫼롱, 일본의 듀오 건축사 세지마 가즈오와 류에 니시자와를 비트라 프로젝트에 끌어들였다. 비트라 건축 패밀리로 불리는 이들 모두는 훗날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는 현대건축의 리더들이었다. 건축계에서 롤프 펠바움의 안목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훗날 건축계 슈퍼스타가 된 이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험성 강한 건축개념과 작가정신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의자의 명가 비트라 탄생의 배후

가구디자인의 명가 비트라를 이끌어 온 롤프 펠바움. 그의 건축에 대한 혜안은 어디서 분출된 것일까? 성장과정을 들추어보면 그의 건축적 자질은 부모로부터 상속된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다. 1934년 비트라의 창업자 빌리 펠바움(Willi Fehlbaum)은 바젤 브리스벨덴의 상가건물을 인수해 아내 엘리카와 함께 비품용 가구회사를 차린다. 1950년에는 생산시설과 창고를 갖추기 위해 바젤 인근 바일 암 마인 들판에 공장부지를 마련한다. 이 때 엘리카는 유리라는 뜻의 '비트라(Vitra)'라는 상호를 처음 사용했다.

가구 공장이 체계가 잡힐 무렵 펠바움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세계 각국을 여행했다. 17세 때에 그는 부모를 따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둘러봤다. 1958년 5월부터 6개월간 열린 브뤼셀 만국박람회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놀랄만한 건축물들이 즐비했다. 특히 뒤틀린 쌍곡포물면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조명회사의 전시관 '필립스 파빌리언(Philips Pavilion)은 어린 시절 롤프의 머릿속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 건축물이 근대건축의 거장인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건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건축사의 위대성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다.[2] 필립스 파빌리온을 봤던 이때의 강한 체험이 자하 하디드같은 파격적 조형을 추구하는 건축사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 적이 있듯이, 이 때 보았던 건축은 특별한 경험으로 각인된다. 19살 무렵에는 부모를 따라 미국 서부여행을 떠났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찰스 임즈의 집과 스튜디오를 방문하고는 디자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3] 아트 앤드 아키텍츄어(Arts and Architecture) 잡지사가 1945년부터 1966년 사이에 추진한 실험 주택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던 '임스 하우스'(Eames House)는 실현된 25채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임스 부부는 1949년 완공과 함께 입주하여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찰스 임스의 주택과 그가 디자인한 가구를 둘러보면서 롤프 펠바움은 찰스 임스의 디자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림 4) 롤프 펠바움이 감동한 필립스 파빌리온(1958년)

그림 5) 찰즈 임즈 부부를 방문한 비트라 창업자 빌리 펠바움 부부(왼쪽)

롤프 펠바움은 대학을 졸업한 후 머리를 길게 늘어트린 채 스포츠카를 몰고 인도를 누비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키워나가던 시절 비트라는 세계적인 가구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구 디자이너인 찰스 임즈와 조지 넬슨(George Nelson)이 디자인한 가구를 생산하기로 협약하면서 품격 있는 디자인 제조회사로서 네임밸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2) 1958년 브뤼셀 만국박람회를 맞이하여 필립스사는 미래지향적인 회사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는 전위적인 형태의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사 르 코르뷔지에에게 설계를 의뢰한다. 르 코르뷔지에는 이 때 그에게 건축을 배우고 있던 작곡가 크세나키스((Iannis Xenakis)를 참여시킨다, 쌍곡선의 포물선 모양은 바로 크세나키스가 제안한 것으로,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아테네에서 건축과 공학을 배운 크세나키스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레지스탕스로 활동했고, 전쟁 후에는 파리로 탈출해 건축사 르 코르뷔지에와 같이 일했다.

3) 워싱턴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찰스 임스(Charles Eames)는 1941년 뉴욕 근대미술관 주최로 열린 '유기적 디자인 설계공모전'에 에로 사리넨과 함께 성형합판 의자를 출품하여 대상을 받은 후부터 가구디자인에 진력한다. 1946년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개최한 '가구 신작품 전시회'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자 1947년부터 허만 밀러사는 그가 디자인한 가구를 대량 생산된다.

1977년 빌리 펠바움의 뒤를 이어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한 롤프 펠바움은 장 프루베, 알바 알토를 포함한 1930년대의 클래식한 모던디자이너의 작품과 찰스 임즈와 조지 넬슨의 초기 디자인 가구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찰스 임즈가 사망하자 그가 사용했던 사무실 집기를 포함하여 임즈 가문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실을 통째로 사들였다. 가구 컬렉션이 2백여 점에 달했다. 1987년 디자인 평론가이자 컬렉터였던 알렉산더 폰 페게작(Alexander Von Vegesack)이 비트라와 합류하면서 디자인 미술관의 초석이 다져진다. 프리랜서겸 개방 이사로 취임한 페게작과 협조아래, 수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건축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당초 롤프 펠바움은 공장 바로 옆 건물에 전시장을 두어, 비즈니스 고객에게만 소장품을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페게작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중에게 개방하는 별도의 미술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한다.

롤프 펠바움과 프랭크 게리

롤프 펠바움은 1980년대 중반 프랑크 게리에게 비트라를 위해 가구를 디자인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다. 그러나 게리는 이 편지를 잡동사니 서류들을 담아놓는 상자에 집어넣고는 몇 달을 보냈다. 편지 내용을 한동안 잊고 지낼 무렵, 절친한 친구 클래스 올덴버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비트라 회장 롤프 펠바움을 위해 조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은 CEO이니 의자 디자인을 해보라는 권유였다. 자신도 비트라를 위해 조각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니 동참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조각가 올덴버그와는 여러 번에 걸쳐서 협동작업을 해왔던 터이라 끌리는 구석이 없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게리의 의자 디자인은 여느 가구와는 달랐다. 곡면으로 접합되기도 하고 마분지처럼 특수한 재료가 이용되므로 특수한 제작방식을 거쳐야만 했고, 의자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이 필요할 뿐더러, 자신이 갖고 있는 도구들을 스위스까지 가져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가구라 펠바움이 수락할지도 의문이었다. 게다가 건축설계 작업이 메인이었기에 가구제작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다. 하루 일과 중 틈나는 시간 짬을 내어 가구를 제작해 왔던 그는 결국 거절하고 만다. 6개월이 지나 또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지만 그 편지마저 상자 속으로 집어던진다.

롤프 펠바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뉴욕에서 올덴버그 부부와 게리가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 롤프 펠바움이 배석할 수 있었다. 간곡한 어조로 의자 디자인을 해달라고 펠바움이 요청하지만 게리의 답은 똑같았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겠지요"라고 에둘러 거절했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게리는 학교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밀라노로 갔다. 이 때 클래스 올덴버그와 반 부르겐 부부 역시 밀라노 공과대학에서의 강의 때문에 체류하고 있었다. 게리는 일을 끝낸 후 올덴버그 부부와 함께 그가 바일 암 마인에 추진하고 있는 야외 조각 발렌싱 툴스를 보기위해 비트라 가구단지로 향했다. 이 때 게리는 롤프 펠바움을 다시 만난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롤프 펠바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가구공장과 함께 미술관을 지을 예정이니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올덴버그에게 의뢰한 조각은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생일 선물이고, 미술관은 어머니 생일 선물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가 수집해 온 의자들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장과 함께 디자인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게리는 공장이 들어선 전원적인 주변을 떠올리면서 특유의 스케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했다. 수평과 수직선을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형태였다. 펠바움은 게리가 제시한 미술관 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미술관과 접해 있는 공장의 입구성을 중시한 게리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멋진 출입구를 이용하지 못하면 홀대 받을 것이라며, 공장 입구 건물을 조각처럼 꾸미는 작업을 병행했다. 미술관에 나타난 자유분방한 형태적 요소가 입구에 면한 공장건물에 전이되면서 공장과 미술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

펠바움은 확충 예정인 공장마저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게리는 대신 알바로 시자를 추천했다. 알바로 시자의 건축은 자신의 건축을 드러내지 않는 내향적 스타일이었다. 자하 하디드의 소방서와 프랑크 게리의 미술관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만약 알바로 시자의 건축마저 강한 조형을 내세워 자율성을 띠었더라면 비트라가구단지의 건축적 특질은 오늘날처럼 조화로

그림 6) 비트라 가구단지 입구. 프랭크 게리는 미술관과 공장의 형태적 컨텍스트를 고려해 공장 양단에 미술관에 사용되었던 곡면의 모티프를 추가했다.

움을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도다다오의 회의장, 프랭크 게리의 비트라 미술관, 알바로 시자와 니콜라스 그림쇼의 공장 사이에 위치한 자하 하디드의 소방서. 이들은 느린 악장 사이에 빠른 악장이 하나씩 끼어 들어가는 연출된 음악처럼 정과 동의 조화로움을 갖고 있다. 어느 비평가는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비트라 가구단지의 건축 중에서 우수한 건축을 꼽으라는 것은 우문이라고. 이곳의 건축들은 저마다 본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1989년 비트라 가구단지에 이상한 형태의 미술관이 처음 들어섰을 때 비평가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괴테아눔과 롱샹교회를 떠올렸다. 게리의 건축론을 다룬 책들은 1928년에 완공된 괴테아눔이 비트라 미술관의 조형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한다. 자서전 성격이 강한 저서 'Gehry Talk'에서 비트라미술관은 이렇게 서술된다.

그림 7) 프랑크 게리에 의해 1989년 완공된 비트라 디자인미술관 전경

비트라 미술관, 낭만적 사유와 표현주의적 기호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최남단 바일 암 라인은 낮은 구릉이 뻗어 들판을 이루는 조용한 평야지대이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전개되면서 농업은 쇠퇴해 갔고,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특별한 특징을 갖지 못한 그저 그런 중성적인 마을로 변해갔다. 게리는 이런 중성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건축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굳이 주변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에 시각적인 자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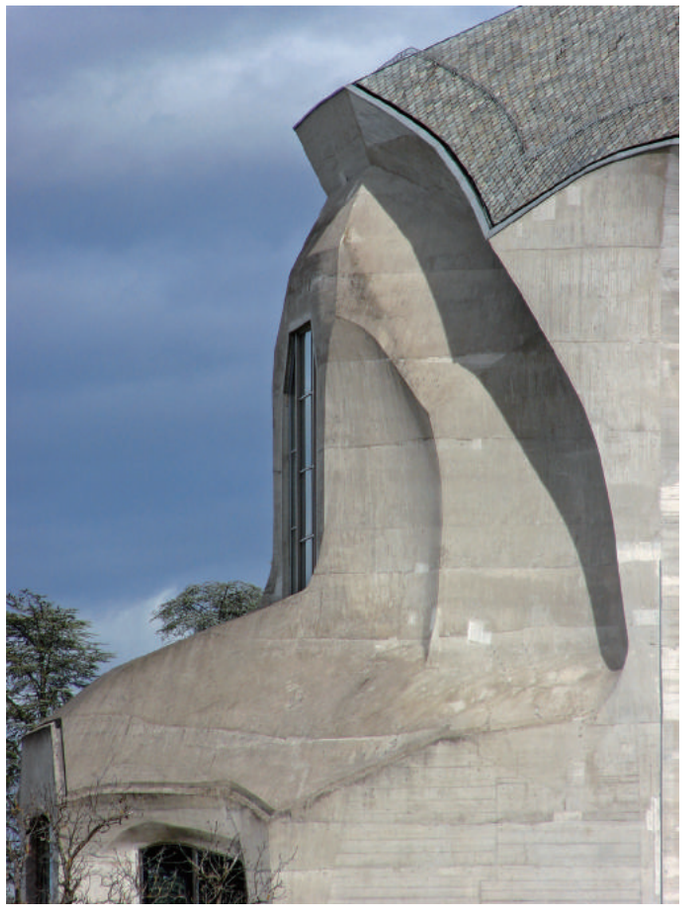


그림 8) 조소적 형태의 괴테아눔

그림 9) 바젤 근교 도르나흐 언덕위에 위치한 괴테아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4년에 설계한 학교시설로 비트라미술관 설계시 참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에 위치한 유명한 건축물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괴테아눔과 르 코르뷔지에의 롱샹순례자 예배당의 영향을 받은 게리는 하얀 석고 갤러리를 창조했다. 갤러리는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백색 건물의 외부는 돌과 석고를 섞어 사용했고 지붕은 아연 패널이다"

바젤 근교 도르나흐 언덕 위에 위치한 괴테아눔(Goetheanum)은 괴테의 세계관과 자연관에 깊이 매료된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1924년에 설계한 학교시설로, 대지가 식물을 키워내듯이 건축도 '유기적'이야 한다는 관념을 지녔던 슈타이너의 조형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건축이었다. 슈타이너는 괴테아눔을 설계하면서 인지학(Anthroposophy)의 세계관을 건축적으로 구현하길 원했다. 브르노 타우트의 '유리의 집'과 에릭 멘델존의 '아이슈타인 탑' 같은 표현주의 건축물이 계획되던 시점이었다. 비트라 미술관과 괴테아눔 사이에 60여년의 간극이 있지만 조형적으로는 유사성을 드러낸다.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수직과 수평을 구분하기 힘들다. 꿈틀거리는 듯한 곡면 계단실은 표현주의 건축의 다이내미즘을 연상시킨다. 게리는 비트라 미술관을 설계하기에 앞서 올덴버그 부부와 함께 바젤 일대를 여행한 적이 있는 바, 슈타이너가 지녔던 조형의지가 게리에게 도플갱어처럼 다가왔을 것이라는 짐작해 볼 수 있다.

1989년 완공된 비트라 미술관은 프랭크 게리 건축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전환기적 작품으로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게리가 1929년생이니 정확히 예순 살에 생애 첫 미술관 프로젝트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합판과 철망, 함석처럼 흔하고 값싼 공업소재를 사용한 소탈한 작품으로 데뷔한 그는 비트라 미술관을 맡을 무렵부터 보다 더 자유분방한 형태조작으로 옮겨간다. 고전주의에 대한 복고적 열망과 장식과 상징성의 복권을 외쳐댔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온기가 남아있던 1980년대의 상황에서 볼 때, 면의 절곡과 꿈틀대는 곡면을 지닌 비트라 미술관의 비정형 건축은 혁신적인 것이었다. 게리를 일컬어 규칙의 파괴자로 명명할 만 했다. 프랭크 게리가 이처럼 규칙을 파괴하고 낭만적 조형을 구사할 수 있었던 배경을 비평가들은 그가 살아온 자유분방한 캘리포니아의 지역적 특성에서 찾고 있다. 스페인 건축사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라도 프랭크 게리의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그가 몸담고 건축을 활동을 해 온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4)]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농밀하게 묘사했듯이 로스앤젤레스는 혼성적 문화와 다양한 삶이 공존하던 곳으로 보수적인 동부에 비해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다. 고전건축의 구성원리와 디테일을 답습하는 유럽식 보자르 교육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던 미국 동부의 대학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학들은 서양 고전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통과 인습에 귀속되지 않고 반항아적이고 이단아적인

1) 게리에게 절름은 시절 영향을 준 건축사로는 1950년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리처드 노이트라와 그의 제자인 레이플 소리아노를 꼽을 수 있으나 재료와 형태를 자유롭게 다루는 게리의 철학은 건축사들보다는 오히려 에드워드 모지스와 로버트 어윈, 론 데이비스, 케니스 프라이스 같은 로스앤젤레스의 화가와 조각가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형성된다.

건축실험이 가능한 곳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 프랭크 게리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벗어나 뉴욕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리처드 세라와 클래스 올덴버그와 교우하면서 낭만적 조형세계를 확대시킨다. 고베의 피시레스토랑이나 바르셀로나의 물고기 조형물처럼 사물의 스케일을 확대해 재현하는 방식은 클래스 올덴버그로부터 배운 것이고, 뒤틀려진 곡선미에 대한 집착은 리처드 세라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논리와 질서와 결별한 그는 비트라미술관을 계기로 점차 조각가들처럼 우연성과 영감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비트라 미술관 앞에는 망치와 펜치, 드라이버가 결합된 익살스런 모습의 클래스 올덴버그와 그의 아내 반 부뤼겐이 함께 작업한 밸런싱 툴(Balancing Tool, 균형 잡힌 공구)이 우뚝 서있다. 아크로바틱을 연상하듯 해머와 스쿠르 드라이버, 망치가 묘하게 어울려 균형을 잡고 있는 'Balancing Tool'은 백색으로 처리된 미술관 건축과 전경과 후경이 되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조응하기도 하고 강한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망치와 드라이버는 의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를 상징하고 자유분방한 미술관 조형은 창의적 세계를 표상하고 있어 예술적인 측면에서 건축과 조각은 다름 아니라는 표명 같기도 하다.

그림 10) 비트라 미술관 앞에는 망치와 펜치, 드리이버가 결합된 익살스런 모습의 클래스 올덴버그의 조각 '균형잡힌 공구'(Balancing Tool)

파격과 비표상, 비트라 소방서

1984년 어느 날 BBC에서 방송된 에티오피아의 끔찍한 기아 난민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아일랜드 가수 밥 겔로프(Bob Geldof)는 폴 매카트니와 조지 마이클, 보이 조지 등 영국을 대표하는 41명의 뮤지션을 규합해 '밴드 에이드(Band Aid)'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선곡을 녹음한다. 이 싱글은 발표되자마자 영국 차트 정상을 차지하면서 대성공을 거뒀고 영국 뮤지션들의 자선에 자극을 받은 미국 가수들도 이에 동조했다. 스티비 원더, 밥 딜런, 티나 터너, 케니 로저스 등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아프리카를 위한 연합'을 결성하고 그 유명한 위아더월드('We Are The World)'를 내놓자 밥 겔도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륙간 자선 콘서트를 기획했다. 1985년 7월 13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과 필라델피아 케네디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열린 지상 최대의 자선 콘서트가 성공리에 끝나자 슈퍼 와이드판 기획자 밥 겔도프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대되는 영광을 안았고,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명예기사 작위를 받는 영광을 누렸다.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많던 밥 겔로프는 2005년에는 시드니 폴락 감독의 영화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Sketches of Frank Gehry)[5]에도 얼굴을 내민다. 프랭크 게리의 생애와 건축을 소개하는 83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로, 밥 겔로프의 역할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을 본 소감을 밝히는 것이었다. 영화 속에서 켈로프는 이렇게 말한다.

"비트라 미술관을 처음 보았을 때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투어 버스 안에서 피곤에 젖어있을 때 창밖

5) 시드니 폴락 감독이 자신과 오랜 우정을 나눈 프랭크 게리의 작품 세계와 작업 환경을 밀착해 카메라에 담았다. 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둘러싼 이야기는 물론 LA 디즈니 콘서트홀 완공 축하 연주회의 풍경도 담겨 있다. 게리와 인연을 맺은 여러 친구들, 건축 비평가들,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줄리앙 슈나벨과 데니스 호퍼, 밥 겔도프 같은 예술계의 유명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작품은 2006년 칸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그림 11) 자하 하디드에 1993년 완공된 비트라소방서 전경

으로 나타난 비트라 미술관의 형태는 마치 춤추는 무희가 한순간 지나가는듯한 황홀한 느낌이었죠"

그의 눈에 비친 비트라 미술관은 피카소나 브라크의 입체파 회화처럼 형태는 파괴되고, 한스 샤로운 건축처럼 표현주의적 성향을 지닌 어느날 트랜스포머처럼 홀연 등장한 파격의 건축이었다. 그러나 강도 7 이상의 지진처럼 건축계에 더 큰 파장으로 와 닿은 것은 그로부터 4년 후에 완공되는 비트라 소방서였다. 하늘로 솟구친 날카로운 칼날 같은 콘크리트는 아방가르드의 최전선을 보는 듯 했다. 비트라 가구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바일 암 라인 지역에는 소방서가 없었다. 화재당시 초기 진압이 어려웠던 것은 인근지역에 소방서가 없던 탓이다. 두 번 다시 대형 화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펠바움은 아예 가구단지 내에 소방서를 둔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자하 하디드와 접촉했다. 하디드가 들고 온 도면은 난해했다. 직교좌표는 사라지고 움직임 강한 사선과 비틀린 역동성이 가득했다. 계획안을 받아 본 펠바움은 10대 후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렸다. 1958년 브뤼셀 만국박람회에서 마주친 필립스 파빌리온의 생경함. 소용돌이치면서 나선형으로 비틀려 상승하는 전위 건축의 도발적인 모습과도 같았다 .

하디드는 열 살 때부터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했다. 생소한 말을 즐겼고 기존관념을 따르지 않으려 했다. 대학 4학년 때 그는 기존 표현법을 거부했다.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만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러시아 절대주의에 나타난 역동적인 시각적 메시지에 주목했고 자신만의 드로잉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192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해 주목하지 않던 시절, 날카로운 예각과 사선과 속도감으로 가득한 그녀의 투시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몇 현상설계에 작품을 출품하지만 실현되지 못한다. 지나치게 관습을 뛰어넘었다는 평을 받으면서 페이퍼 아키텍트라는 딱지가 붙어 다녔다. 1990년대 이전까지 여성건축사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터. 남성중심의 헤게모니가 뚜렷한 건축시장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건축주가 나타났다. 롤프 펠바움이었다. 자하 하디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비트라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느낀다. 그것은 나의 첫 번 째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관계,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파격적인 공간구조 때문일까. 어지럼증을 겪은 소방관들의 항의로 소방서가 폐쇄됐다는 소문이 나돌지만 사실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바일 암 라인지역에 소방서가 건립되면서 가구단지 내에 굳이 소방서를 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1층 격납고에 있던 소방차 두 대가 사라졌고 소방관들도 더 이상 보이질 않았다. 소방서 기능이 사라진지 오래 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비트라 소방서로 불린다. 각인된 기억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 12) 자하 하디드와 비트라 회장 롤프 펠바움

또 다른 혁신, 비트라하우스와 물류창고

격렬한 태풍 뒤에 고요가 찾아오는 것처럼 비트라 소방서가 완공된 1993년 이후, 10년 넘게 비트라 가구단지에는 어떠한 건물도 건립되지 않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작동된 것은 2006년이다. 공교롭게도 스위스와 일본의 듀오 건축사 두 팀이 선정된다. 헤르조그와 드 뫼롱(Herzog & de Meuron)과 일본 건축 사무소 세지마 가즈오와 류에 니시자와가 이끄는 SANNA와의 계약이다.

롤프 펠바움은 새로운 건축방식을 좋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효돼 건축사를 선정할 요량이면 나름의 기준이 작동됐다. 얼마나 혁신성과 창의성이 있느냐 하는 잣대가 작용한다. 공학적인 안정성도 크게 작용한다.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한 이들 듀오 건축설계팀은 공간 프로그램의 독특함과 장인정신이 깃든 신재료, 신공법의 사용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터였다. 프로젝트마다 반복이 아닌 새로운 이슈를 산출해 냈다.

롤프 펠바움은 SANNA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SANNA의 건축 속에는 경직된 형식주의나 설익은 독창성, 교화적인 미니멀리즘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독특함(창의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모두 제거하는, 건축의 형태와 구조에서 필요한 가시적 형상만을 남기려는 조형의지, 나는 이 점을 높이 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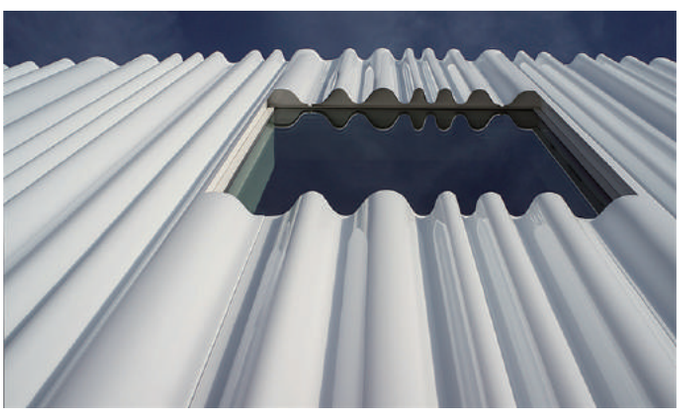


그림 13) 비트라 물류창고의 파형 외피

SANNA가 이전까지 수행한 프로젝트들은 문화 시설이나 대학 건물이 대부분, 창고 기능의 공장 프로젝트는 처음이다. 1981년 화재 때 경미한 손상만 입고 살아남은 옛 공장건물을 해체한 후 신축하는 과업, 조형적으로 재미없는 따분한 작업일 수 있다. 비트라에서 생산되는 가구 제품의 적재와 출하를 위한 물류 창고를 만드는 기능적 성격이 강한 프로젝트였으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SANNA는 미학과 기능 모두를 추구하는 비트라의 지향점과 꼭 맞아떨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림 14) 비트라 물류창고

물류창고의 외형은 원형이다. 입면을 만드는 데에만 2년이 걸렸을 정도로 공을 들인 외벽은 폭 1.8m, 높이 11m의 굽이치는 파형의 아크릴 유리로 제작되었다. (각각의 패널들은 먼저 평판 시트들로 주조된 다음 섭씨 60℃까지 가열하고 진공주형을 거쳐 물결치는 구조를 얻어냈다.) 아크릴의 외부 층은 완전히 투명하지만, 내부 층은 불투명한 백색으로, 외관을 따라 게이트가 사방으로 뚫려 있어 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내부는 제품의 적재와 보관, 출하 동선 등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설계했다. 축구장 2개 면적의 물류창고 중앙에 조립작업 영역이 자리잡고, 최종제품을 보관하는 창고영역과 단위 부품과 반제품을 보관하는 대형수납창고가 주변에 존재한다. 공장은 2012년에야 완공이 되는데, 공사 중이던 2010년 SANNA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다. 비트라 단지 건물을 설계하면 프리츠커상을 받는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된다,

사무용 가구와 기업 고객에 주력해오던 비트라는 2004년부터는 개인 고객으로 눈을 돌려 홈 컬렉션을 출범시키나 비트라 캠퍼스에는 홈 컬렉션 전시에 적합한 인테리어 공간이 없었다. 롤프 펠바움은 2006년 헤르조그와 드 뫼롱 팀에 비트라 쇼룸 디자인을 의뢰하게 된다.

그림 15) 12개의 매스가 쌓기 개념으로 적층된 비트라하우스

그림 16) 비트라하우스 내부

건축계획의 콘셉트는 친숙함에 방점을 두고 '집'과 '쌓기'로 결정된다. '가정적인 스케일'의 홈 컬렉션 전시장을 구성한다는 전략으로 건물명을 '비트라하우스'라고 정한다. 결과는 어린아이가 12개의 긴 장난감 집을 아무렇게 끼워 맞추며 5층으로 쌓아 올린 듯한 기발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고 길이 57m, 너비 54m, 높이 21.3m 볼륨 내에 12개의 주거공간 더미가 무작위로 겹쳐진 형상으로 치밀한 계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구조다. 캔틸레버의 돌출 길이와 틀어진 각도 등을 결정하는 데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지진 등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대한 콘크리트 기반 위에 지었다고 한다.

입구는 겹쳐진 집들의 중앙 축에 위치해 있고, 동선의 효율성을 위해 맨 꼭대기층 부터 내려오면서 쇼룸을 둘러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찰스 임스, 조지 넬슨, 장 푸르베, 베르너 팬톤, 이사무 노구치 같은 가구 디자인사에서 획을 그은 디자이너들의 제품과 안토니오 시테리오, 재스퍼 모리슨 등 현대적인 디자이너들의 가구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너무나 장난스러운 형태로 공간의 비효율성이 점쳐졌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저층부터 최상층까지 공간은 치밀했다. 박공지붕 내부는 여느 주거공간처럼 안락했고 다양한 가구들이 효용성을 뽐내기에 적합했다. 형태와 공간의 창의적인 조합에 구조적 안정성의 승리다.

그림 17) 비트라하우스 프로젝트에 대해 토의하는 롤프 펠바움(중앙), 자크 헤르조그와 드 뫼롱

포스트 펠바움

새로운 걸작을 리스트에 추가한 비트라 캠퍼스는 연간 1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비트라 건축의 특징은 정과 동, 격식과 비격식의 조화에 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 하모니를 연출하는 오케스트라처럼, 특질이 다른 여러 명의 건축사가 모여 현대건축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곳이 비트라가구단지이다.

비트라 측은 디자이너를 '작가(author)'라 부른다. 작가는 그저 외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창조하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로 정의한다, 비트라는 개성이 강한 작가들과 협업을 즐긴다. 비트라 캠퍼스가 만들어진 원동력이다. 그 배후에 마에스트로 CEO 롤프 펠바움이 위치해 있다.

롤프 펠바움은 유달리 건축사들이 디자인한 가구를 좋아했다. 알바 알토의 가구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알토의 가구를 생산해내는 아르텍사를 사들였다. 장 푸르베와 찰스 임스의 판권에 이어 알바 알토 가구의 판권까지 거머쥔 것이다. 완성도 높은 건축물들은 건축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활발한 상호 작용 속에서 산출되어 왔다. 롤프 펠바움은 건축개념을 열성적으로 밀어준 충직한 클라이언트였다. 건축의 문화적 파워를 일찍이 알아차린 위대한 컬렉터이자 전략가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현대건축의 성소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비트라 건축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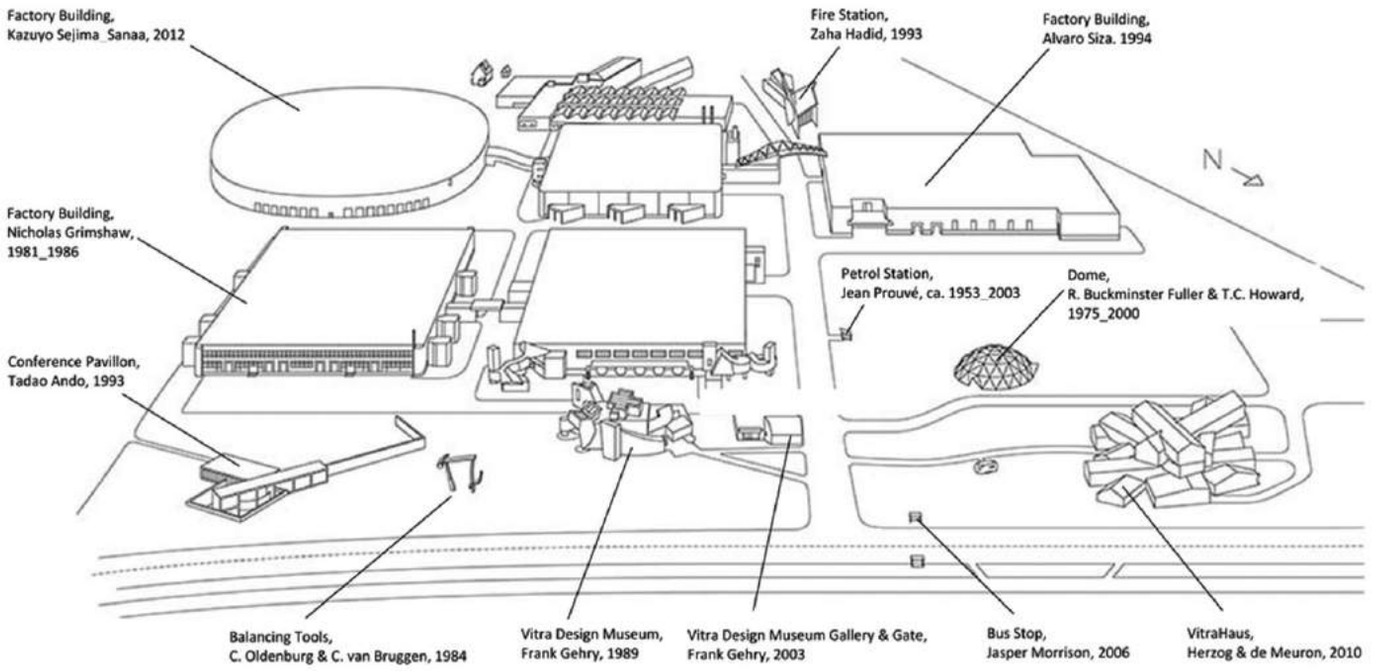


그림 18) 비트라 캠퍼스 배치도

AIA Convention 2015에서의 미국 건축사 계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 of US's certified architects at AIA Convention 2015

글. 김항년 | KIM Hang Nyeon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 (주)예창 건축사사무소

2013년 5월 개정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등록제도와 함께 우리 건축사는 법에서 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이 개정 건축사법은 건축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곧 직면하게 될 시장개방에 따른 MRA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무교육 실시를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해외사례 등을 통해 우리의 건축사 실무교육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때 마침 우리협회와 긴밀한 교류를 유지해온 미국건축사협회(AIA)로 부터 지난5월 CONVENTION초청이 있었다. 그간 우리협회는 매년 참가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회장과 국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친선교류의 역할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교육원의 입장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건축사교육을 조사하고 점검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 AIA Convention 2015의 개요

1) 주제

이번 컨벤션의 주제는 "IMPACT" 이며,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건축사 의 확실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 기간

*기타 : AIA Business, 각종전시회, 국제단체 간 교류, 각종 시상식 등

2015년 5월 13일(수) ~ 2015년 5월 16일(토)

3) 장소

미국 Geogia주 Atlanta 일원 및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2. AIA Convention 2015의 PROGRAM 구성

Program	Program 수	CODE	계속교육 인정여부
Keynote Presentations	3	GS	o
Preconvention Workshops	27	WE	o
Education Seminars	184	TH, FR, SA	o
Education Tours	44	ET	o
Expo-Credit	72	EX, EL	o
Networking and Business Events	67	EV	x
Fun Tours	11	GT	x
	408		

3. AIA EXPO 2015의 구성

8개의 PAVILION으로 나눠져 약 2600개 업체가 참여하여 AIA Convention 2015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건축사는 규정에 의한 계속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PAVILION의 구성
1) Composites Pavilion
2) Concrete Pavilion
3) Lighting Pavilion
4) Sustainable Pavilion
5) Metal Pavilion
6) Software and Technology Pavilion
7) Stone and Tile Pavilion
8) Wood Pavilion

4. 미국의 건축사 계속교육

1) 건축사 면허의 갱신을 위해 각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균 년간 12LUs(Learning Units)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2/3정도는 HSW(health, safety, and welfare)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각주에서 요구하는 각각 다른 시간의 교육과는 달리 AIA는 회원으로서의 년간 18LUs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12LUs는 HSW에 해당해야 한다.

3) Convention에서의 교육 이수

각종 Seminars, Tours, Expo-Credit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Convention에서의 교육확인의 규정

참가자는 등록 시 등록배지(BADGE)를 발급받고 해당 교육 시 등록기에 이 배지를 스캔하면 교육이수가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교육시간별로 유효 스캔 시간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1시간교육 시 : 교육 시작 10분 이내
- 반일 교육 시 : 교육 시작 15분 이내
- 1일 교육 시 : 오전 및 오후 각각 교육 시작 15분 이내
- 투어의 경우 투어 출발 시간 전 30분 이내

참고로 같은 시간대에 여러 교육에 스캔을 할 경우 전 교육은 취소되고 마지막 스캔한 교육만 자동으로 등록됨

5. 2015 AIA CONVENTION의 계속교육 구성

1) Keynote Presentations :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 및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3개의 과정으로 각각 1LU을 인정함.

- President Bill Clinton : 약 7000명의 회원이 참가
- Welby Altidor and Julie Dixon
- 성공을 위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토론

2) Preconvention Workshops : 5월13일(수요일)

강좌구분	코드	강좌수	인정 시간	비용 (US$)	AIAU 강좌
오전(8:00~12:00)	WE101~110	10	3.75 LUs	190	3
종일(8:30~17:30)	WE201~205	5	7.5 LUs	375	
오후(13:00~17:00)	WE301~311	11	3.75 LUs	190	
종일(8:00~16:30)	WE400	1	6.0 LUs	225	
계		27			

WE101 Risk Management Essentials: Part I (The Design Firm)
Room B208
3.75 LUs
Effective risk management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any design firm. In this workshop, you'll access tools and strategies designed to minimize legal and financial risk. Industry professionals and subject-matter experts will provide in-depth, updated information to help you practice your craft with peace of mind.
Wednesday, 8 a.m.–noon, $190

TH101 Defining an Agenda for Resilient Design
Room B206
1.00 LU HSW AIA U
Resilient design is all about improving how structures respond to outside impacts, from major disturbances like Hurricanes Katrina and Sandy to more subtle, gradual influences. In this cutting-edge session, you'll discuss a variety of perspectives with expert panelists, review real-world case studies, and help craft a comprehensive agenda centered on resilient design.
Thursday, 7:30–8:30 a.m.

ET101 Herndon Home
Walking Tour [NWA]
1.00 LU CSCE
Step into the Herndon Home and let the inspiration begin! Designated a National Historic Landmark in 2000, this heritage-rich home is a shining example of upper-income dwellings from the early 1900s. The interior incorporates various design traditions, including Renaissance forms and Rococo detailing.
ET101a Wednesday, 8:30–10:30 a.m., $45
ET101b Wednesday, 2:30–4:30 p.m., $45
✕ ET101c Friday, 8:30–10:30 a.m., $45
ET101d Friday, 2:30–4:30 p.m., $45
ET101e Saturday, 8:30–10:30 a.m., $45
ET101f Saturday, 2:30–4:30 p.m., $45

3) Education Seminars

5월14일(목)부터 5월16일(토)까지 매일 약 20개의 강의실을 이용하여 총 184강좌를 운영하며 모두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강좌 중 일부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추후 온라인교육(AIAU)으로 활용함.

- 목요일

강좌구분	코드	강좌수	인정 시간	비용 (US$)	AIAU 강좌
1교시(7:30~8:30)	TH101~119	19	1 LUs	무료	5
2교시(9:00~10:00)	TH201~219	19	1 LUs	무료	3
3교시(15:30~16:30)	TH301~318	18	1 LUs	무료	4
4교시(17:00~18:00)	TH401~418	18	1 LUs	무료	3
계		74			15

- 금요일

강좌구분	코드	강좌수	인정 시간	비용 (US$)	AIAU 강좌
1교시(7:00~8:00)	FR101~118	18	1 LUs	무료	8
2교시(14:00~15:00)	FR201~219	19	1 LUs	무료	2
3교시(15:30~16:30)	FR301~318	18	1 LUs	무료	4
4교시(17:00~18:00)	FR401~420	20	1 LUs	무료	4
계		74			18

- 토요일

강좌구분	코드	강좌수	인정시간	비용(US$)	AIAU 강좌
1교시(7:00~8:00)	SA101~119	19	1 LUs	무료	4
2교시(8:30~9:30)	SA201~219	19	1 LUs	무료	4
계		36			8

4) Education T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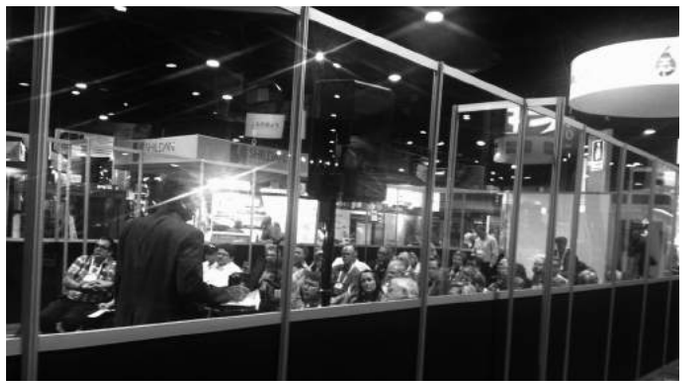
5월13일(수)부터 5월16일(토)까지 4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강좌구분	강좌수	인정시간	비용(US$)	비고
2시간 투어	9	1, 1.5 LUs	45~55	
2.5시간투어	15	1, 1.5, 2LUs	45~80	
3시간투어	12	1, 1.5, 2 LUs	50~60	
3.5시간투어	2	1.5, 2.5LUs	65~80	
4시간투어	3	1, 3.5, 4 LUs	60~75	
6시간투어	3	3, 3.5, 4.5 LUs	75~85	
계	44			

* 이동수단 : 버스, 자전거, 도보
* 1강좌 당 1~6회에 걸쳐 수요에 맞게 투어를 실시하고 있음.
* Program중 50%정도가 사전 예약이 완료됨.
* 대체로 진행시간의 1/2~2/3정도의 시간을 LU로 인정함.

5) Expo-Credit

강좌구분	강좌수	인정시간	비용(US$)	비고
A 강의실	8	1 LUs	무료	
B 강의실	8	1 LUs	무료	
C 강의실	8	1 LUs	무료	
D 강의실	8	1 LUs	무료	
업체 라운지	40	1 LUs	무료	10사운영
계	72			



EX101 The Key Things to Know: Contract Documents for Small Firms

1.00 LU HSW CBCI

Don't put your work at risk by proceeding without a contract. A comprehensive contract can help achieve the owner's goals while protecting the health and safety of building occupants. In this session, you'll get a working knowledge of how to write and administer effective contracts—a must for small firms and sole practitioners.

✕ Thursday, 12:45-1:45 p.m.

BASF Corporation
Booth 1165LL

EL109 Creating a Smaller Footprint with Sustainable Concrete

1.00 LU HSW CBCI

Although the use phase has a huge impact on the eco-friendliness of a structure, the type of construction materials could play an even bigger role in achieving net-zero energy buildings and reducing the environmental footprint. Join us for this session to explore how sustainable concrete can deliver optimal performance while helping the planet.

EL109a Thursday, 12:45-1:45 p.m.
✕ EL109b Friday, 10:30-11:30 a.m.

* 기타 Expo 업체 탐방을 통한 교육 이수 절차
  - 4개 업체를 방문하여 각각 최소 15분 동안 상담을 할 경우 1LU 획득
  - 각 업체를 방문하여 15분이상 상담을 할 경우 추가로 0.25LU를 획득
  - 3일의 AIA Expo 기간 동안 총 6LUs를 획득가능
  - 교수이수확인은 6월1일에 가능
  - AIA회원의 경우 convention후 10일안에 인정여부를 게시

6. 교육내용의 분석

- 이번 미국 컨벤션의 교육을 보면 총 327개 중 약 30%에 해당하는 119개가 친환경관련 교육임을 알 수 있다. 특히 Expo-Credit의 경우 72개의 교육 중 66개의 교육이 친환경교육임을 볼 때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IA 계속교육(18LUs)에서 요구하는 2/3(12LUs)이상을 HSW교육으로 받아야하는 하는 만큼 건축사로서 갖춰야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강좌도 많은 부분(약 55%)을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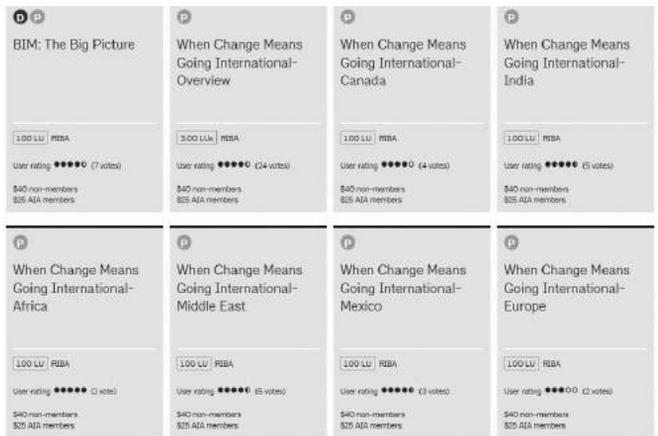
교육종류	교육수	HSW	GBCI	ADA	비고
Preconvention Workshops	27	11	7	3	
Education Seminars	184	84	31	3	
Education Tours	44	31	15	0	
Expo-Credit	72	54	66	0	
계	327	180	119	6	

HSW : Health, Safety, and Welfare
GBCI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nstitute
ADA :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7. 2015 AIA CONVENTION 미참여자 및 재수강자를 위한 교육(AIAU)

이번 CONVENTION에서 실시한 교육 중 42개의 PROGRAM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AIAU(www.aiau.aia.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LU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 이 경우 별도의 교육비를 지불하해야 함.
AIA회원의 교육비 : 1강좌당 25US$
AIA비회원의 교육비 : 1강좌당 40US$



8. 교육의 이수 확인 등

Credit 획득 절차

- 등록비를 지불 하고 등록
- 항상 배지를 착용하고 모든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배지를 각 교육장에서 스캔하여 승인을 받고 각 투어 출발지에서 배지 스캔 절차에 따라 스캔

Transcript and Credit Requests

- AIA 계속교육이수현황을 5월20일 이후에 온라인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교육이수 확인이 안 될 경우 이름, 회원ID, 참여프로그램(코드와 제목)를 적어 conventionfeedback@aia.org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함.
- 교육이수현황은 AIA회원만 가능하고 비회원의 경우 이메일로 교육확인 증명서 신청이 가능

9. 기타사항/소규모사무실을 위한 배려

- 소규모나 1인 사무실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 중 21개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선정 고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소규모 사무실 간의 교류 및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서 작은 사무실도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프로그램참여를 도와주고 있어 콘벤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맺는 말

미국의 Convention은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지역의 건축사간 교류 및 정보 공유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실시되는 4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은 건축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주 및 AIA회원으로서 필요한 수준 높은 계속교육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많은 부분이 HSW부분 교육과 더불어 친환경교육임을 볼 때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사등록원 출범과 함께 건축사 실무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도 건축사 실무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생겼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교육이 아닌 건축사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자질을 키우는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만 할 우리협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내실 있는 건축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미국 건축사협회의 계속교육에 대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컨벤션의 참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협회 간 국제 교류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의 건축사 실무교육실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축사 실무교육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다.